

茶戶里遺蹟과 日本

武末純一(다케스에 준이치)*
이동관 譯**

I. 머리말

II. 海村의 설정

III. 낙랑토기 · 삼한토기

1. 다호리유적과 對馬
2. 壹岐와 北部九州연안의 海村
3. 三雲 · 井原유적
4. 한국의 古式樂浪土器

IV. 中國錢貨

V. 야철유구와 철소재, 원료철

VI. 맺음말

참고 문헌

삽도 출전

* 福岡大學

** 福岡大學

I. 머리말

다호리유적의 발굴 연구 성과 중, 본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漢이나 樂浪과 문자를 사용하여 교역한 다호리 1호분 피장자상의 제창이었다(이건무 1992). 일본 열도(이하, 일본)의 彌生時代 중기 후반에 해당하는 다호리 1호분에서 출토된 中細形銅矛 c類는 일본에 다수 존재하며 용범도 있기 때문에 설령 다호리 1호묘의 예가 한국산이라고 해도 피장자는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일본에서도 문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어로뿐만 아니라 해상교역활동 또한 주요 생업으로 삼았던 취락을 ‘海村’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이하, 한국) 원삼국시대에 병행하는 彌生時代 후반기(중기 후반~후기) 한일 교류의 실태를 다호리 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형식으로 서술한다.

II. 海村의 설정

彌生時代に 출현한 농촌은 繩文時代의 일체화된 바다와 산 속에 비집고 들어가 바다의 생업이나 산의 생업을 주체로 하는 마을을 만들어 내었다. 물론 농촌에서도 바다나 산의 생업활동은 있었으나 그 비중은 적다. 농촌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가운데 전체 취락유적 중 海村・山村을 추출하는 기준은 반월형석도의 수량이다.

海村의 전형적인 예는 福岡縣 志摩町 御床松原(미토코마츠바라)유적으로 이 곳은 인접한 新町(신마치)유적까지 포함한 하나의 마을이다(志摩町教育委員會 1983・1987・1988). 이 마을은 彌生시대부터 고분시대에 걸쳐 석추가 매우 많고 철제 낚시바늘이나 전복파개도 있어 그물을 이용한 網漁의 비중이 높고 잠수어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이 곳의 반월형석도 수량(12점)은 동시기 수혈주거수가 같지만 농촌유적인 佐賀縣 鳥栖市 安永田(야스나가타)유적 반월형석도 수량(63점)의 약 1/5이기 때문에 농업의 비율도 그 정도일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御床松原유적과 같이 주위의 유적보다도 어로구의 비율이 높은 연안부의 취락은 海村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지리환경이나 魏志倭人傳의 ‘南北市糴’ 기록처럼 해상활동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되는 對馬(츠시마)에서도 지금까지 반월형석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섬 전체가 海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壹岐(이키)에서는 原

の辻(하루노즈지)유적과 カラカミ(카라카미)유적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왜계 유물이 현저한 한국 늑도유적(중기가 주체로 하한은 후기 초)도 어구가 우월하고 반월형석도는 적어 원삼국시대의 海村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潛水漁用의 鯨骨製 및 鹿角製의 전복따개(武末 2008b)나 外海用 낙각제의 西北九州型 결합식낙시바늘 등의 北部九州系 어로구가 늑도유적에서 일정량 보이는 점이다. 北部九州의 전복따개가 鯨骨製인 것에 비하여 한국의 전복따개는 유문토기·무문토기시대 모두 사슴의 中手足骨製가 기본으로 남해안 지대에 분포한다. 늑도유적 출토품의 경우 경골제는 필자 분류<표 1> ① I 류로 彌生 중기 전반이 거의 하한으로 보이며 거기에서 파생되는 낙각제의 ②A류는 늑도 I 期(彌生 전기 말~중기 전반 병행)에서 늑도 II 期(彌生중기 후반~후기 초두 병행)에 존재한다<도면 2>. 한편 기부에 돌기를 가진 경골제품(①II류)은 北部九州에서 중기 전반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늑도에서 경골제품은 없으나 그것을 모방한 ②D류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로부터 독자적으로 전개된다. 또 경골제 전복따개는 西北九州型 낙시바늘과 함께 山陰지역에도 전파되어 역시 낙각제 전복따개를 만들어내고 角座를 가진 山陰의 독특한 예<도면 2-23>도 나타난다. 이 각좌를 가진 전복따개는 늑도유적에서도 출토된다<도면 2-14>. 따라서 西北九州型 낙시바늘의 존재까지 감안한다면 늑도유적에 이주한 彌生人 中에는 北部九州의 ‘倭의 水人’(岡崎敬 1968)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山陰지역의 ‘水人’도 일부 포함하여 문화변용을 일으킬 정도로 오랜 기간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彌生시대 중기에는 한반도 남부의 海村과 九州(특히, 北部九州)의 海村 간에 상호 왕래하는 海村의 독자적 세계가 구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낙랑토기·삼한토기

한국에서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彌生시대 중기 후반(기원전 1세기)에는 일본열도 각지에서 지역정권이 명확화된다. ツクシ(츠쿠시)정권 내부에서는 伊都(이토)國과 奴(나)國이 대두하여 다른 국들의 상위에 서고 왕이 나타나며 왕묘를 포함한 수장층묘의 부장품으로는 前漢鏡이나 유리제 璧 등의 중국계가 주류를 이룬다. 이것은 낙랑군 등 한사군의 설치로 ツクシ(츠쿠시)정권 수장층 권위의 배경이 古朝鮮에서 前漢으로 변화하였기 때문

으로 후기에는 그것이 後漢으로 이어진다.

단, 한국과의 교류는 더욱 왕성해진다. 한국산의 청동기나 철기, 삼한토기(원삼국시대 남한의 토기)나 낙랑토기(북한 낙랑군이나 대방군 등의 토기)가 北部九州를 중심으로九州 일대에서 출토된다. 또 늑도유적의 늑도Ⅱ기에는 중기 후반~후기 전반의 彌生系 토기가 前 시기와 변함없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교류의 범위는 中部・東部九州나 東瀨戸内 지역까지 더욱 확대된다. 또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中廣形・廣形の 동모・동과나 소형방 제경 등 北部九州産 청동기(대부분이 奴國産)도 보인다.

이 중기 후반~후기에는 농촌이 거대화되어 원형 환호 속에 방형 환호가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福岡縣 前原市 三雲・井原(미쿠모・이와라)유적의 왕묘인 南小路(미나미쇼지) 1호・2호묘에 인접한 下西(시타니시)地區에서 명확히 파악된다. 樂浪郡治 태수의 관청이나 三韓의 방형 수장층 居宅을 방문하여 직접 정보를 얻은 왜인들은 지배를 위해 방형 환호를 차츰 일본에서 실현한 것이다. 또 이러한 수장권력의 돌출과 그것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형 청동제기가 각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해상교역 활동 쪽이 탁월한 海村도 있었다. 이러한 海村에서 특징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樂浪土器・中國錢貨 등이며 이러한 유물들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1. 다호리유적과 對馬

다호리유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對馬의 제 유적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異形청동기를 비롯한 소형청동기<도면 6>로 1호묘의 平環은 對馬 峰町の サカドウ(사카도우)유적, 馬鐸은 豊玉町シゲノダン(시게노단)・豊玉町 佐保ソウダイ(사호소우다이)에서 보이며 19호묘의 雙頭管狀銅器는 峰町ガヤノキ(가야노키) 채집품・峰町 木坂(키사카) 5호묘・豊玉町 唐崎(도우자키)墓, 有鉤笠頭形銅器는 木坂 5호묘・唐崎墓・峰町 トウトゴ山(토우토고야마) 1호묘, 角形銅器는 木坂 5호묘・唐崎墓・上縣町 佐護白岳(사고시라타케)・峰町 サカドウ(사카도우), 鍔金具는 ガヤノキ(가야노키)B・木坂 7호묘・豊玉町 黒木南鼻(쿠로키미나미바나)墓・豊玉町 佐保浦赤崎(사호우라아카사키) 2호묘, 盤部金具는 唐崎墓, 粟粒文把頭飾은 シゲノダン・美津島町 キロスガ浜(키로스가하마) 등에서 유사품이 출토되지만, 일본의 타 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외에도 (傳)洛東里<도면 5>나 馬島의 예가 있으며 對馬의 청동기는 전체적으로 영남 지역 중에서도 남해안 지대와 공통성이 강하다. 이것은 對馬에서 출토된 有孔十字形銅器나 半球形飾金具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낙랑토기는 半球形平底의 洗形鉢이 후기 후반~말의 분묘에서 나타나지만 각 유적에서 1~2점에 불과하며 이를 「對馬型」이라고 부른다(武末純一 1991). 분묘의 부장토기도 長崎縣 對馬市 峰町 小姓島(코조우지마) 3호묘나 木坂유적, 長崎縣 對馬市 上縣町 佐護白岳유적의 예 등 전체적으로 영남지역의 삼한토기 쪽이 우세하며 중기 후반부터 나타난다<도면 7·8>.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對馬에서는 한국남부의 삼한(특히 변한)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주체였다. 이는 취락유적인 長崎縣 對馬市 峰町 三根유적 山邊(양배)地區(峰町教育委員會 2002)에서 낙랑토기보다 연질 및 와질의 삼한토기가 우월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철모나 철검은 對馬부터 北部九州에 유례가 있다.

2. 壹岐와 北部九州연안의 海村

壹岐島에서는 낙랑토기가 유적 내에 산만하게 분포하는 カラカミ(카라카미)유적이 오래 전부터 알려져 「カラカミ(카라카미)型」으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양상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 原の辻(하루노츠지)유적의 조사에서 명확해졌다. 原の辻 유적의 낙랑토기와 장경호나 광구호 등의 삼한토기는 거의 1:1의 비율이다. 낙랑토기의 시기를 후기 후반 이후로 한정하고자 하는 설도 있으나 활석혼입의 화분형토기도 있어<도면 9> 삼한토기와 함께 상한은 중기 후반까지 올라간다. 또 이 화분형토기는 취사용이어서 낙랑인의 거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御床松原유적에서는 낙랑토기가 3점 출토되었으며 그 중 활석혼입토기는 彌生 후반기의 古段階로 위치지어진다. 또 근년 조사된 福岡市 西區 今宿五郎江(이마쥬쿠고로우에)유적이나 元岡(모토오카)유적은 彌生 후반기인 新段階를 중심으로 낙랑토기가 출토된다. 이 유적들은 모두 伊都國의 범위에 포함되며 연안부에 위치한다. 伊都國에서 彌生시대 후반기에 낙랑토기가 월등히 많은 것은 이미 필자도 지적하였으나 元岡(모토오카)유적에서는 삼한계 토기가 많다. 한편 奴國에서는 삼한토기가 많으나 福岡市 博多區 比惠·那珂(히에·나카) 유적에서는 고분시대 初頭頃부터 낙랑토기가 많아지는 듯 하다.

3. 三雲・井原유적

이러한 낙랑토기는 대부분 北部九州연안의 海村에 집중하고 있으나 내륙부의 유적에서는 예외적으로 伊都國의 國邑인 三雲・井原유적에 집중된다. 특히 番上(반조우)Ⅱ-5지구 土器집적소(溜)에서는 불과 88m²에서 30점 이상의 낙랑토기가 집중 출토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番上型’이라 부르고 낙랑인의 집단적 거주를 상징하였다. 이에 대하여 “原の辻유적도 낙랑계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낙랑계토기만으로는 三雲과의 차이를 찾아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寺井誠 2007). 그러나 필자는 낙랑계토기의 양만으로 原の辻유적까지 포함한 ‘カラカミ(카라카미)型’과 ‘三雲番上型’을 일부러 나누어 설정한 것은 아니다. 原の辻의 낙랑토기가 넓고 산만하게 출토되는 것에 비하여 三雲에서는 番上地區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地區 이외에는 그다지 출토되지 않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4. 한국의 古式樂浪土器

이러한 낙랑토기는 늑도유적 A지구에서도 늑도Ⅱ에서 보이며 나-61호 소성유구에서는 취사용의 활석혼입 화분형토기나 구연상부가 외반하고 돌출된 胴部繩蓆文의 단경호가 須玖Ⅱ식 광구호와 공반된다. 이는 낙랑인의 거주를 나타낸다. 이 외 B지구에서도 활석혼입의 화분형토기나 와질단경호, C지구에서도 와질단경호나 광주시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것처럼 구연상부가 내측으로 접히고 돌출된 球形壺가 출토되었다. 모두 파편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었으며 화분형토기로 보아 낙랑인도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식 낙랑토기의 출토는 對馬市 峰町 セノサエ(세노사에)유적에서도 보이는 등 낙랑군에서 한국 남부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 나아가서는 北部九州에 이르므로 彌生시대 후반기 초두에는 각 지역의 海村 교류망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또 鳥取市 靑谷上寺地(아오야카미지치)유적에서는 대략 중기 후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단면삼각형의 연결점토대 옹<도면 8-14>이 있어 후술할 철기의 양상과 더불어 이 교류망은 일본의 中國・四國지역에까지 연장된다. 그리고 후술할 중국錢貨로 본다면 近畿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IV. 中國錢貨

중국 錢貨는 일본 海村에서는 지금까지 御床松原유적(新町유적을 포함한)에서 6점(半兩錢 2점, 貨泉 4점), 原の辻유적에서는 15점(五銖錢 1점, 大泉五十 1점, 貨泉 11점, 不明錢 2점)이 출토되었고 元岡유적에서는 9점(五銖錢 1점, 貨泉 8점), 今宿五郎江유적에서는 5점(森本幹彦 2008)이 출토되었다<도면 11·12>. 靑谷上寺地(아오야카미지치)유적에서 낙랑토기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대량의 어로구와 함께 貨泉도 4점 출토되었다. 이 외에 大阪府 龜井(카메이)유적에서는 貨泉 4점, 岡山縣 高塚(다카즈카) 유적에서는 貨泉 25점이 출토되었으며 모두 당시 바다에 인접하여 입지하였다. 이들 4점 이상의 中國錢貨가 출토된 海村은 原の辻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면적이 20만㎡를 넘는 國의 거점취락에 비하여 작은 취락이다. 또 海村의 중국錢貨는 분묘가 아니라 日常生活域에서 출토되는 특색이 있다.

한편 國의 거대한 거점취락유적, 특히 北部九州의 경우 三雲南小路나 須玖岡本(스구오 카모토)D지구와 같이 30장 전후의 中國鏡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왕묘를 정점으로 하여 주변에 완형 중국경을 부장하는 예가 많다. 이에 비하여 海村에서는 原の辻유적을 제외하면 중국경은 모두 파편으로 그 수도 적고 완형경이 전혀 없어, 취락의 규모와 보유하는 중국경의 질과 양이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錢貨는 20만㎡가 넘는 이러한 國邑級 유적의 경우, 三雲·井原유적 0점, 須玖유적 1점(貨泉), 福岡縣 平塚川添(히라즈카카와조에)유적 1점(貨泉), 佐賀縣 吉野ヶ里(요시노가리)유적 1점(貨泉), 愛媛縣 文京(분쿄우)유적 0점, 奈良縣 唐古·鍵(카라코·카기)유적 0점, 大阪府 池上曾根(이케가미소네) 0점, 滋賀縣 伊勢유적 0점, 『都市』라고 하여 교역의 거점으로도 이야기되는 比惠·那珂유적도 0점으로 취락규모와는 오히려 반비례한다. 靑谷上寺地유적에서는 녹각제 전복따개가 다수 보이고 西北九州형 님시바늘도 존재하기 때문에 北部九州의 海村을 경유하거나 때로는 직접 중국·한국과 관계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한국에서도 남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중국 錢貨의 출토 예가 증가하면서 이를 집성한 연구가 이루어졌다(金京七 2007, 국립경주박물관 2007).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안부의 일상생활 지역 출토품과 내륙부에 걸친 분묘 출토품으로 대별된다. 후자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유적 A-1-74호묘·A-1-121호묘·E-132호묘에서 각 1점, 경상북도 영천시 용전리 유적 목관묘 3점, 경상남도 창원시 다호리유적 1호묘 3점이 속하고 모두 前漢代의 五銖錢으로, 부장 시기가 기원전 1세기이다. 한편, 전자의 늑도 유적 C지구에서는 전

한대의 오수전 1점과 반량전 4점(합계 5점)이 출토되었으며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으나 彌生 중기 후반 병행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貨泉은 제주시 산지항에서 貨布・大泉五十, 후한의 오수전과 함께 출토되고 공반되는 중국경이나 소형방제경으로 보아 그 시기는 기원후 1세기로 생각된다. 김해패총, 군곡리패총, 성산패총에서의 출토 또한 海村과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당동유적 등 거점취락의 일상생활 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海村에 집중되는 경향은 한국에서도 동일하다.

또 늑도 등 최근의 예로 보아 일본열도의 오수전이나 반량전의 상한도 기원전 1세기이다. 특히 御床松原유적의 반량전 상한은 중기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岡山縣高塚유적의 貨泉은 공반되는 토기로 본다면 기원후 1세기대에 위치하며 일본열도 貨泉 사용시기의 상한은 후기 전반이다.

서일본과 한반도 남부의 海村에 중국 錢貨가 집중되고, 게다가 분묘의 부장품이 아니라 일상생활 지역에서 출토되는 것은 그것들이 위신재가 아니라 海村의 일상적인 활동 중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교역 시 중국 錢貨를 代價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한일 연안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중국 錢貨로,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 여수군 거문도의 五銖錢 980점과 山口縣 宇部市 沖ノ山(오키노야마)의 116점(반량전 20점, 오수전 90점)이상의 예이다.

거문도의 예는 난파선으로 보이고 오수전은 前漢과 後漢의 것이 모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영훈, 이양수는 전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국립경주박물관 2007). 이후 상세한 재검토를 기대하고자 하나 화천이 1점도 없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沖ノ山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江戸시대에 발견되었고 錢貨가 담겨있던 용기는 중기 후반대의 擬무문토기 용이다(小田富士雄 1982). 古賀信幸・豆谷和之는 “이 용의 구연 밑 11~12cm 지점부터 내면 아래로 거의 전면에 걸쳐 원형의 綠靑(구리, 청동등에 생기는 녹색의 녹)이 부착된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복제품을 제작하고 古錢의 대용으로 10엔짜리 동전을 넣어본 결과, “10엔짜리 동전 135개로는 최상부가 구연 밑 15~16cm 지점이 되며 매납웅에 가까운 상황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얻기 위해서는 500개 이상의 10엔짜리 동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古賀信幸・豆谷和之 1995). 이 토기의 시기는 동일한 구연 형태의 무문토기계 연질웅이나 발이 늑도유적에 있으며 彌生시대 후기 초두 병행기의 연질웅과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彌生 중기 후반의 무문토기계의 토기로 봐도 무방하다.

한국 내륙부의 오수전 부장 지대와 남해안의 海村 지대의 접점에 위치하는 다호리 1호분의 붓과 문방구계 유물(素環頭刀子, 銅環, 오수전)에 대하여 이견무는 일찍이 이 붓이 필기용이라는 것을 논증함과 함께 銅環을 天秤(양팔저울)에 물건을 매달아 무게를 재는 砵碼로 보았다. 그리고 천칭 자체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철의 地金(2점 1조, 엇갈려 포개고 끈으로 묶은 구조철부)을 가지고 중국 한 또는 낙랑과 교역하며 그 내역을 붓으로 기록, 틀린 문장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에 삭도(素環頭刀子)를 사용하고 대가로 지불하는 돈(五銖錢)을 天秤과 砵碼(銅環)로 재는 피장자상을 그려내었다(이건무 1992). 그 후 原の辻유적에서는 彌生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장대저울의 추인 동제 저울추(銅權)가, 島根縣 田和山(타와야마)유적에서는 중기 후반의 낙랑계 석제벼루(石硯)와 硯石이 출토되었고(松江市教育委員會 2005), 늑도 유적 B지구 가-245호 주거지에서는 鑄鐵製의 저울추나 낙랑제 石硯·구조철부 등이 중기 후반의 彌生토기와 공반되었으며(이창희 2007) 늑도유적 A지구 보고서 고찰에서는 석제 저울추(石權)의 존재가 제기되었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이것들을 감안한다면 彌生시대 후반기 한일의 海村에서는 교역 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장대저울로 재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교역의 주요 품목은 棒狀이나 판상, 혹은 판상철부나 제형구조철부 등의 형태를 띤 철소재(鋼 상태) 및 원료철(銑鐵 상태)로 보인다.

또 전술하였듯이 三雲유적에서는 番上지구에 낙랑인의 거주가 상정되고 八龍(하치류)지구 大溝에서 출토된 彌生 후기 후반의 대웅 頸部에는 「竟」(鏡)자가 예세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도 도래 낙랑인을 중심으로 한 문자사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중국 錢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北部九州 國의 연합체인 ツクシ(츠쿠시)정권과 한반도·중국 간의 공적 외교활동 방면에 깊게 관여하였으나 海村 세계에서 전개된 경제적인 교역활동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彌生 후반기에는 對馬와 한국 남해안 지대와의 일상적인 교류활동이 기초가 되며 그 위에 한일 양 지역 海村 세계의 교역활동이 전개되고 더 나아가 상층부의 츠쿠시정권 수장층과 중국왕조 본토, 낙랑·대방군, 諸 韓國과의 외교교섭이 위치하는 삼중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삼자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츠쿠시정권이 중국왕조 등으로 보낸 공적 사절에 北部九州 연안의 海村이나 對馬의 사람들도 깊이 관여하고, 삼한과 왜의 교역에는 거꾸로 한일 海村 세계가 주도하여 츠쿠시정권의 수장층을 제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 야철유구와 철소재, 원료철

삼한과 왜의 교역 시 주요 품목에는 棒狀品이나 板狀品 이외에 대형판상·봉상의 철 부나 주조제형철부도 있어 일본열도에서의 철소재·원료철로 생각되어진다.

필자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조제형철부(武末 2006)로, 한국에서는 2점 1조로 사용되어 인부가 등글어진 농구의 예도 있으나 늑도 A지구 패총 가층의 때려 파손된 예<도면 18-4>, 다호리 1호묘의 2점 1조로 묶여 속에 흙이 가득 차 있는 예<도면 18-1>, 늑도 B지구 가-245호 주거지의 사용흔이 없고 역방향으로 2점을 1조로 엮갈려 포갠 예<도면 18-5> 등으로 본다면 원료철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彌生시대 일본열도의 예는 兵庫縣 大平(오오히라)유적 출토예를 제외하면 모두 파편이다<도면 18-6~16>. 이전 九州의 출토예를 집성했을 때, 九州에서는 壹岐·對馬에 한정되고 側緣에 돌대가 없는 것에 비하여 中國·四國지역에서는 側緣을 가진 예가 있어 서로 다른 생산지에서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武末純一 2006). 그 후 九州에서는 雲透(쿠모스키)유적 SX202(중기 초두~전반)과 福岡縣 春日市 須玖유적 盤石(반자쿠)지구 2차 1호주거지(중기 후반 및 후기 종말기의 토기가 출토)에서도 출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唐津市教育委員會 1998, 春日市教育委員會 2008). 盤石의 예는 측면이 둥그스름한 횡단면형으로 본다면 중기 후반까지 올라가도 좋은 고식의 형태로 늑도 A지구와 동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또 中國·四國지역에서는 靑谷上寺地유적 3區 SD20(후기 초두~후엽)에서 철제 삽날에 부착된 예(鳥取縣教育文化財團 2002a)가 확인된 바 있고 鳥取縣 米子市 古市宮ノ谷山(후루이치미야노타니야마)유적 수혈주거지2(후기후엽)에서도 출토되었다(鳥取縣教育文化財團 2002b). 古市宮ノ谷山の 예는 제시된 도면에서 側緣 돌대가 없다. 靑谷上寺地の 예는 側緣 돌대를 가지고 폭이 넓은 것으로 고식 I 型의 파편으로 보인다. 양단을 접어 만 鐵刀에 부착되어 있어 靑谷上寺地에서의 시기는 후기가 된다. 제작시기 자체는 빠르나(기원전 3~2세기) 아마도 파편으로 반입되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도 일본열도 출토례의 다수가 파편이고 九州의 예는 側緣 돌대가 없으며 中國·四國지역의 경우 대부분 側緣에 돌대가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靑谷上寺地の 예를 보아도 이것들은 綱精鍊을 하고 철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원료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福岡縣 須玖유적에서는 赤井手(아카이테)지구, 仁王手(니오우테)A지구에서 노지나 미완성

품, 파편, 송풍관 등 철기 제작관계 유물이 출토되어 복수의 공방이 병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赤井手지구는 출토된 유물에서 철기제작과정이 복원되는 등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철검의 半製品이 출토된 중기 후반의 33호 주거지에서는 깊이 20cm로 심하게 굽힌 말각방형의 爐가 설치되고 그 주변에도 불 맞은 흔적이 보인다. 이 주거지에서는 정련 도중의 塊狀 선철자료도 출토되어 수입된 강소재를 가공하는 철기제작뿐 아니라 원료철(선철)을 강으로 바꾸는 강정련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단으로 파낸 하단부에 방습설비를 한 爐는 仁王手A유적에서도 보인다. 또 5호 토광에서는 철부의 半製品이 출토되었다. 이 외 赤井手유적에서는 후기 후반~말의 6호 토광에서 한반도에서 10점 1조로 부장되는 경우가 많은 대형 봉상철부가 7점 출토되었고 이 또한 철소재였던 것으로 보여 이곳이 지속적인 철기생산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정련에서 주목되는 것은 長崎縣 對馬市 三根유적 山邊지구에 집중되는 주조제형 철부편으로 이곳에서는 椀形滓 등도 공반된다. 단, 山邊지구에서는 고분시대 유물도 동일층에 있어 彌生시대의 야철 관련 유물을 엄밀히 추출해낼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늑도유적 A지구에서는 爐 외에 송풍관(봉에 식물질의 섬유를 종방향으로 나란히 휘감아 식물의 섬유로 묶은 후 점토를 덧붙여 제작)이나 노벽, 철재, 단조박편 등도 발견되었다. 송풍관의 크기로 봐서 단야 외에 정련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용범이나 안틀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분석결과 용해로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보이는 철재도 있다. 彌生 중기 후반부터 후기에 이러한 한일 海村에서는 단순히 남북의 물건을 중개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교역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 대형관상철부는 다호리유적에서 다수 보이며 1호묘와 같이 날이 서 있지 않은 예도 있다. 이것은 물론 도끼로써도 사용되나 절단하여 그대로 소형 철기를 제작하는 철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熊本縣 玉名市 前田(마에다)유적의 절단된 頭部가 남은 대형관상철부(후기초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이다<도면 17-7>.

이러한 대형관상철부나 주조제형철부의 교역에 海村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御床松原유적이나 原の辻유적・靑谷上寺地유적에서 이것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彌生시대의 海村을 설정하였는데 彌生 후반기가 되면 九州와 한국 남해안의 海村에서는 낙랑토기나 中國 錢貨가 눈에 띄게 되어 近畿에서 낙랑·대방군까지 교역망이 조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中國 錢貨는 중국경과는 대조적으로 海村의 일상생활역에서 다수 출토되고 국의 중심이 되는 거대 농촌이나 그곳에서 전개되는 도시적 취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中國 錢貨는 어로와 함께 海村의 생업활동의 주체인 교역활동 시에 대가로서 사용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그곳에서는 문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러한 中國 錢貨의 사용이 이후 고분시대에 두절되는 것은 이것이 중국의 한제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교역의 대상물은 원료철이나 철소재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형관상철부나 주조제형철부 형태로의 유통도 그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문자의 사용, 中國 錢貨의 사용, 대형관상철부나 주조제형철부의 유통은 모두 다호리유적의 출토유물에 크게 관련되는 것이다. 다호리 유적은 원삼국시대 전기 전반(彌生시대 중기 후반~후기 전반) 낙랑에서 일본의 近畿에 이르는 교역망 속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호리 1호묘의 피장자는 ‘교역의 王’임과 동시에 ‘철의 王’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일본 논문·저서·발굴보고서

- 甘木市教育委員會, 1993, 『平塚川添遺蹟發掘調査概報』
- 境 靖紀, 2004, 「彌生時代の鍛冶工房の研究—福岡縣春日市赤井手遺蹟の再検討—」 『たたら研究』 第44號
- , 2006, 『北部九州における彌生時代の青銅器生産の研究』 平成17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奨励研究)研究結果報告書
- 古賀信幸・豆谷和之, 1995, 「山口縣宇部市沖ノ山發見の錢貨資料」 『出土錢貨』 第3號
- 高倉洋彰, 1989, 「王莽錢の流入と流通」 『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14』, 九州歷史資料館
- 久住猛雄, 2008, 「福岡平野, 比惠・那珂遺蹟群—列島における最古の都市—」 『彌生時代の考古學8, 集落から讀む彌生社會』
- 宮崎貴夫, 2008, 「よみがえる彌生都市, 原の辻遺蹟」 『シンポジウムよみがえる彌生都市, 邪馬臺國時代のまちづくり』 福岡縣教育委員會
- 岡崎 敬, 1968, 「倭の水人」 『日本民族と南方文化』, 平凡社
- , 1982, 「日本および韓國における貨泉・貨布および五珠錢について」 『森貞次郎博士古希記念古文化論集』, 森貞次郎博士古希記念論文集刊行會
- 岡部裕俊・比佐陽一郎・片多雅樹, 2004, 「三坂七尾地區墳墓出土貨泉について—全國古代中國錢出土一覽—」 『福岡考古』 第21號
- 岡山縣教育委員會, 2000, 『高塚遺蹟・三手遺蹟2—山陽自動車道建設に伴う發掘調査18』 岡山縣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150
- , 2001, 『下庄遺蹟・上東遺蹟, 主要地方道箕島高松線道路改築に伴う發掘調査2』 岡山縣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157
- 大山スイス村埋藏文化財發掘調査團・鳥取縣大山町教育委員會, 2000, 『妻木晩田遺蹟發掘調査報告』 IV
- 大阪府教育委員會・(財)大阪文化財センター, 1983, 『龜井』 近畿自動車道天理～吹田線建設に伴う埋藏文化財發掘調査概要報告書
- 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2004, 『大和王權と渡來人—三・四世紀の倭人社會—』 平成16年

後期特別展

唐津市教育委員會, 1998, 『雲透遺蹟』(Ⅱ)

渡邊昇, 1995, 『兵庫縣出土の古墳時代以前の錢貨』『出土錢貨』第3號

立岩遺蹟調查委員會, 1977年, 『立岩遺蹟』, 河出書房新社

森本幹彦, 2008, 『福岡市西區今宿五郎江・大塚遺蹟』『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第8回
合同考古學會 日韓交流の考古學』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總鑑 I』

武末純一, 1983, 『壹岐・對馬』『三世紀の考古學』下, 學生社

_____, 1988, 『佐賀縣安永田遺蹟の石庖丁ー石庖丁の計測値 (2)ー』『古文化談叢』第19集

_____, 1989, 『山のムラ, 海のムラ』『古代史復元4ー彌生農村の誕生ー』, 講談社

_____, 1991, 『彌生時代の樂浪系土器と三韓系土器ー瓦質土器を中心にー』『地方史研究』
第41卷5號

_____, 1994, 『彌生中期の人々と文字』『西日本文化』300號

_____, 2006, 『韓國の鑄造梯形鐵斧ー原三國時代以前を中心にー』『七隈史學』第7號

_____, 2007, 『海を渡る彌生人』『第8回彌生文化シンポジウム, 海と彌生人』, 鳥取縣教
育委員會

_____, 2008a, 『韓國・勒島遺蹟A地區の彌生系土器』『七隈史學』第9號

_____, 2008b, 『韓國・勒島遺蹟のアワビおこし』『九州と東アジアの考古學ー九州大學
考古學研究室50周年記念論文集ー』

_____, 2008c, 『いま元岡遺蹟群がおもしろい』『西日本新聞』, 考古學マンスリー

文殊省三, 1986, 『大和川河床出土の貨泉・鉢・臺付無頸壺・蓋について』『大阪市立博物館
研究紀要』18, 大阪市立博物館

尾上實, 1995, 『大阪府下における古代以前の出土錢』『出土錢貨』第3號

福岡縣教育委員會, 1982, 『三雲遺蹟 III』福岡縣文化財調查報告書第 63集

_____, 1985, 『三雲遺蹟, 南小路地區編』福岡縣文化財調查報告書第69集

_____, 2000, 『西新町遺蹟 II』福岡縣文化財調查報告書第154集

_____, 2006, 『西新町遺蹟 VII』福岡縣文化財調查報告書第208集

_____, 1992, 『堅粕 1』福岡市埋藏文化財調查報告書第274集

_____, 2000, 『雀居 5』福岡市埋藏文化財調查報告書第635集

- _____, 2003, 『雀居 7』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746集
- _____, 2004, 『下月隈C遺蹟Ⅳ－福岡空港周邊整備工事に伴う下月隈C遺蹟第5次発掘調査報告－』,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795集
- _____, 2006a, 『博多106－博多遺蹟群第147次調査の報告－』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892集
- _____, 2006b, 『今宿五郎江5』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872集
- _____, 2007, 『今宿五郎江6－今宿五郎江遺蹟第9次調査報告(2)－』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924集
- 峰町教育委員会, 1989, 『佐賀貝塚』峰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9集
- _____, 2002, 『峰町日韓共同遺蹟発掘事業, 日韓文化講演會「對馬と韓國」～彌生・中世～』
- 榎本杜人, 1957, 「金海貝塚の甕棺と箱式石棺－金海貝塚の再検討(承前)－」『考古學雜誌』43-1
- 寺井誠, 2007, 「日本列島出土樂浪系土器についての基礎的考察」『古文化談叢』第56集
- 山梨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1999, 『米倉山B遺蹟－米倉山ニュータウン造成に伴う発掘調査報告書－』山梨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調査報告書第163集
- 城南町教育委員会, 2003, 『宮地遺蹟群』城南町文化財調査報告第13集
- 小林青樹, 2006, 「朝日遺蹟出土の鯨骨製アワビ起こし」『動物考古學』23
- 小田富士雄, 1982a, 「山口縣沖ノ山發見の漢代銅錢内藏土器」『古文化談叢』第9集
- _____, 1982b, 「對馬發見の彌生時代瓦質系壺形土器－失われた漢式土器の追蹟－」『森貞次郎博士古稀記念, 古文化論集』
- 小田富士雄・韓炳三編, 1991, 『日韓交渉の考古學』彌生時代篇, 六興出版
- 小値賀町教育委員会, 1984, 『神ノ崎遺蹟』小値賀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4集
- 松江市教育委員会・(財)松江市教育文化振興事業團, 2005, 『田和山遺蹟群發掘調査報告1, 田和山遺蹟』松江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99集
- 柴元靜雄, 1970a, 「北方町東宮裾彌生遺蹟」『新郷土』1970. 7月號
- 熊本縣教育委員会, 2005, 『前田遺蹟』熊本縣文化財調査報告書第225集
- 壹岐市教育委員会, 2007, 『特別史蹟原の辻遺蹟』, 壹岐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10集
- 李昌熙, 2007, 「靑島住居址の一断面」『第17回考古學國際交流研究會, 韓國の最新發掘調査報告會』, (財)大阪文化財センター

長崎縣教育委員會，1974，『對馬－淺茅灣とその周邊の考古學調査－』長崎縣文化財調査報告書第17集

_____，1995，『原の辻遺蹟』長崎縣文化財調査報告書第124集

_____，1999，『原の辻遺蹟』原の辻遺蹟調査事務所調査報告書第16集

_____，2000，『原の辻遺蹟』原の辻遺蹟調査事務所調査報告書第19集

_____，2001，『原の辻遺蹟』原の辻遺蹟調査事務所調査報告書第21集

_____，2002，『原の辻遺蹟』原の辻遺蹟保存等協議會調査報告書第3集

_____，2005，『原の辻遺蹟 總集編 1』原の辻遺蹟調査事務所調査報告書第30集

_____，2007，『原の辻遺蹟－石田大原地區緊急調査報告書－』原の辻遺蹟調査事務所調査報告書第35集

長崎縣教育委員會・郷ノ浦町教育委員會，1998，『車出遺蹟』原の辻遺蹟調査事務所調査報告書第8集

(財)大阪文化財センター，1980，『龜井・城山』寢屋川南部流域下水道事業長吉ポンプ場築造工事關係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

_____，1981，『巨摩・瓜生堂』近畿自動車道天理～吹田線建設に伴う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

(財)大阪市文化財協會，1983，『瓜破遺蹟』大阪市土木局施工の大阪市平野區瓜破6丁目側道舗裝新設工事に伴う遺蹟發掘調査報告書

(財)北九州市教育文化事業團埋藏文化財調査室，1986，『守恒遺蹟－國道322號線築造工事に伴う發掘調査－』北九州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50集

(財)山口縣教育財團・山口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2002，『武久浜墳墓群』山口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調査報告第32集

(財)松山市生涯學習振興財團埋藏文化財センター，1992，『桑原地區的遺蹟，樽味立添・樽味高木・樽味四反地・桑原西稻葉1・2次・桑原田中・經石山古墳・枝松3次』松山市文化財調査報告書26

(財)鳥取縣教育文化財團，2001，『青谷上寺地遺蹟 3』鳥取縣教育文化財團調査報告書72

_____，2002a，『青谷上寺地遺蹟 4』鳥取縣教育文化財團調査報告書74

_____，2002b，『古市遺蹟群3，古市宮ノ谷山遺蹟，古市古墳群』

前原市教育委員會，2001，『三坂七尾遺蹟，福岡縣前原市大字三坂字七尾所在遺蹟の調査報告』前原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77集

- 第19回國民文化祭前原市實行委員會ほか, 2004, 『シンポジウム邪馬臺國の時代「伊都國」』
朝鮮總督府, 1923,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 鳥取縣教育委員會 2007, 『第8回彌生文化シンポジウム, 海と彌生人～みえてきた青谷上寺
地遺蹟の姿～』
- 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6, 『青谷上寺地遺蹟 8』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發掘調
査報告10
- _____, 2006, 『青谷上寺地遺蹟出土品調査研究報告2, 鐵製遺物の自然
科學的研究』
- 佐賀縣教育委員會, 2003, 『吉野ヶ里遺蹟, 平成8年度～10年度の發掘調査の概要』佐賀縣文
化財調査報告書第156集
- 佐藤寛介, 2002, 『岡山縣域における彌生時代鐵器文化の様相』, 『環瀬戸内の考古學—平井勝
氏追悼論文集—』下卷
- 中尾篤志, 2005a, 『鯨骨製アワビおこしの擴散とその背景—原の辻遺蹟出土資料の紹介を兼
ねて—』『西海考古』第6號
- _____, 2005b, 『彌生時代における結合式釣針の擴散と展開—原の辻遺蹟出土資料の位置
づけをめぐる—』『考古論集—川越哲志先生退官記念論文集—』
- 志摩町教育委員會, 1983, 『御床松原遺蹟』志摩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3集
- _____, 1987, 『新町遺蹟』志摩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7集
- _____, 1988, 『新町遺蹟Ⅱ』志摩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8集
- 志摩町歴史資料館, 1997, 『伊都國發掘'97』近年の發掘調査成果展
- 春日市教育委員會, 1980, 『赤井手遺蹟』春日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6集
- _____, 2008, 『須玖岡本遺蹟2』春日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53集
- 春日市史編纂委員會, 1995, 『春日市史』上卷
-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 澤田宗順, 1993, 『たたかいと祈りと—古代青銅器の流れと廣がり—』八代市立博物館未來
の森ミュージアム
- 俵寛司・早田利宏・阿比留伴次, 2003, 『對馬峰町三根・吉田遺蹟群の調査—朝鮮對馬海峽にお
ける彌生～古墳時代の據点集落—』『平成15年度九州考古學會
總會, 研究發表資料集』, 九州考古學會
- 坂田邦洋, 1976, 『對馬の考古學』

下條信行, 2002, 「瀬戸内における石庖丁の型式展開と文化交流」『犬飼徹夫先生古稀記念論集, 四國とその周邊の考古學』

郷ノ浦町教育委員會, 2003, 『戸田遺蹟・車出遺蹟』郷ノ浦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5集

丸山雄二, 1995, 「彌生時代、北部近江に持ち込まれた五珠錢」『出土錢貨』第3號

□ 한국 논문·저서 보고서

國立慶州博物館, 2007, 『永川 龍田里遺蹟』國立慶州博物館學術調查報告第19冊

國立光州博物館, 2003, 『光州 新昌洞低濕地遺蹟 V』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第40冊

國立中央博物館, 1992, 『固城貝塚』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24冊

國立中央博物館, 2001, 『樂浪』

國立濟州博物館, 2006, 『濟州 終達里遺蹟 I』

江原文化財研究所, 2005, 「江陵高等學校化粧室増築工事敷地内文化遺蹟試掘調査報告書」『江陵地域文化遺蹟試掘調査報告書』

金京七, 2007, 「南韓出土 漢代金屬貨幣과 그 성격」『湖南考古學報』第27輯

金建洙, 1999, 『韓國原始·古代의 漁撈文化』學研文化社考古學叢書 23

金承玉·李澤求, 2004, 「完州 上雲里遺蹟 發掘調査概要」『第28回韓國考古學會全國大會發表要旨 統一新羅時代의 考古學』, 韓國考古學會

東亞大學校博物館, 2003, 『發掘遺蹟과 遺物』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第13輯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東萊 福泉洞萊城遺蹟』釜山直轄市立博物館遺蹟調查報告書第5冊

釜山博物館, 2007,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發掘調査報告書』釜山博物館學術研究叢書第19冊

木浦大學校博物館, 1987, 『海南 郡谷里貝塚 I』

李健茂·李榮勳·尹光鎮·申大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李健茂·尹光鎮·申大坤·金斗喆,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考古學誌』第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李健茂, 1992, 「茶戶里出土의 筆에 대하여」『考古學誌』第4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李健茂·尹光鎮·申大坤·鄭聖喜,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I)」『考古學誌』第5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健茂・宋義政・鄭聖喜・韓鳳奎,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 『考古學誌』第7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東注, 2004, 「泗川勒島C地區의 調査成果」, 『嶺南考古學20年の 발자취』嶺南考古學會第13回定期學術發表會
- 李昌熙, 2004, 「勒島遺蹟出土外來系遺物報告—勒島Ⅲ期の 設定과 함께—」, 『勒島貝塚과 墳墓群』釜山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第29輯
- 李清圭・康昌和, 1994, 「濟州道出土漢代貨幣遺物の 一例」, 『韓國上古史學報』第17號
- (財)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勒島貝塚A地區住居蹟群』
- _____, 2006a, 『勒島貝塚』Ⅱ
- _____, 2006b, 『勒島貝塚』Ⅲ
- _____, 2006c, 『勒島貝塚』Ⅳ
- _____, 2006d, 『勒島貝塚』Ⅴ
- 全南文化財研究院, 2006, 『羅州 郎洞遺蹟』
- 濟州史定立事業推進委員會・濟州大學校博物館・濟州島民俗自然博物館, 2001, 『濟州 金城里遺蹟』
- 池健吉, 1990, 「南海岸地方 漢代貨幣」,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
- 崔夢龍, 1976, 「西南區貝塚 發掘調查報告」, 『馬山城山外洞貝塚發掘調查報告書』, 文化財管理局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a, 『慶山 林堂遺蹟(Ⅰ)—A~B地區古墳群—』
- _____, 1998b, 『慶山 林堂遺蹟(Ⅵ)—E地區古墳群—』
- 韓神大學校博物館, 2005, 『風納土城 Ⅵ』

삼도 출전

- 도1 : 志摩町教育委員會 1983, 李健茂・尹光鎭・申大坤・金斗喆 1991, 李健茂・尹光鎭・申大坤・鄭聖喜 1993
- 도2 : 1~4(東三洞貝塚) : 釜山博物館 2007, 5(佐賀貝塚) : 峰町教育委員會 1989, 6(志多留貝塚)・7(菜畑)・15(里田原)・16(夜臼)・17(小川島)・18・19(西川津)・22(原の辻) : 中尾篤志 2005b, 8~14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c, 20・23(青谷上寺地) : 鳥取縣教育文化財團 2002a, 21(カラカミ) : 小田富士雄・韓炳三編 1991, 24(郡谷里) : 金建洙 1999

- ㉔3 : 福岡縣教育委員會 1985
- ㉔4 : 第19回國民文化祭前原市實行委員會ほか2004를 수정
- ㉔5 : 武末純一 촬영
- ㉔6 :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李健茂·尹光鎭·申大坤·金斗喆 1991, 小田富士雄·韓炳三編 1991, 長崎縣教育委員會 1974年, 坂田邦洋 1976
- ㉔7 : 李健茂·尹光鎭·申大坤·金斗喆 1991, 李健茂·尹光鎭·申大坤·鄭聖喜 1993, 李健茂·宋義政·鄭聖喜·韓鳳奎 1995
- ㉔8 : 小田富士雄·韓炳三編 1991, 長崎縣教育委員會 1995, 小田富士雄 1982b, 峰町教育委員會 2002, 立岩遺蹟調查委員會 1977, 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6
- ㉔9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a, 李昌熙 2004, 國立光州博物館 2003, 長崎縣教育委員會 1995, 長崎縣教育委員會 1999
- ㉔10 : 小田富士雄·韓炳三編 1991
- ㉔11 : 宮崎貴夫 2008
- ㉔12 : 1~9 : 福岡市教育委員會提供, 小田富士雄 1982, 武末純一 2007, 尾上實 1995
- ㉔13 : 鳥取縣教育委員會 2007로부터 작성
- ㉔14 : 武末純一 작성
- ㉔15 :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李健茂·尹光鎭·申大坤·金斗喆 1991, 李健茂·尹光鎭·申大坤·鄭聖喜 1993, 李健茂·宋義政·鄭聖喜·韓鳳奎 1995, 立岩遺蹟調查委員會 1977, 長崎縣教育委員會 2005, (財)鳥取縣教育文化財團 2001, 第19回國民文化祭前原市實行委員會ほか 2004
- ㉔16 : 武末純一 촬영, 武末純一 2007
- ㉔17 : 李健茂·尹光鎭·申大坤·金斗喆 1991, 李健茂·尹光鎭·申大坤·鄭聖喜 1993, 村上恭通 1998, 志摩町教育委員會 1983, 熊本縣教育委員會 2005, (財)鳥取縣教育文化財團 2002a, 小値賀町教育委員會 1984
- ㉔18 : 國立中央博物館 2001, 李昌熙 2007,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c, 長崎縣教育委員會 2005, 峰町教育委員會 1989, 春日市教育委員會 2008, 佐藤寛介 2002, 下條信行 2002, 鳥取縣教育文化財團 2002b, 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6, 大山スイス村埋藏文化財發掘調査團·鳥取縣大山町教育委員會 2000, 村上恭通 1998
- ㉔19 : 境靖紀 2004, 春日市教育委員會 1980

표 1. 한일 골각제 전복따개의 分類

	材 質	特 徵
①Ⅰ類	鯨骨	양측 가장자리가 평행하고 기부에 돌기부를 내지 않는다.
①Ⅱ類		体部・刃部는 Ⅰ類와 같지만 기부의 측면에 돌기를 가진다.
①Ⅲ類		基部和 刃部가 側面의 明瞭한 段으로 구별된다.
①Ⅳ類		基部和 刃部가 裏面의 明瞭한 段으로 구별된다.
②A類	鹿角	半截한 鹿角을 선택하여 先端部를 중심으로 얇게 정리하였다.
②B類		角座를 기부로 이용한다.
②C類		「く」자형의 技角을 利用. 先端을 加工하여 刃部를 제작
②D類		体部・刃部는 A類와 동일. 基部の 側面에 돌기를 가진다.
③類	鹿骨	中手骨이나 中足骨 등의 管狀骨을 세로로 이등분한 것으로 한쪽을 U자 또는 W자형으로 調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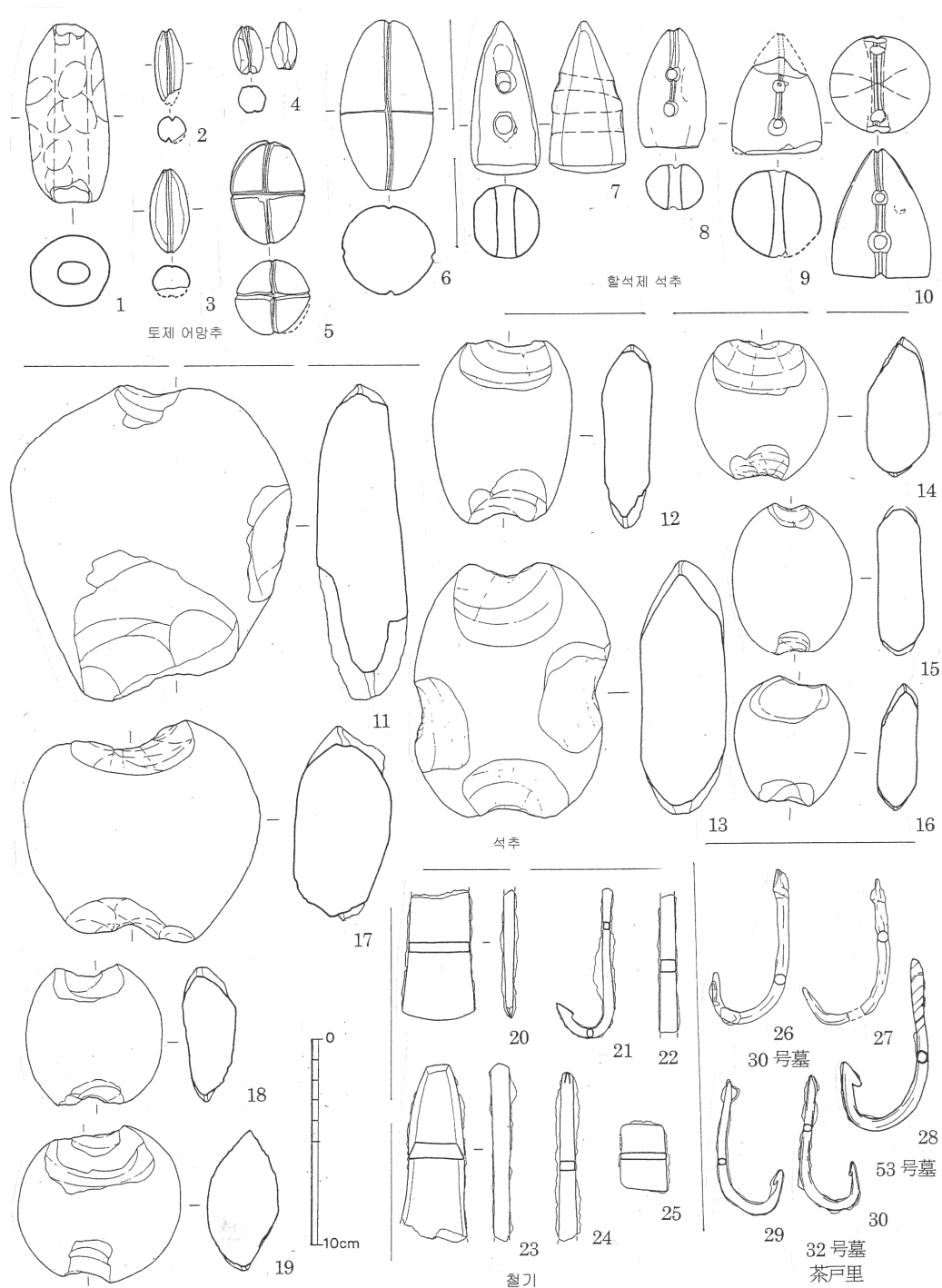
표 2. 彌生時代～古墳時代前期의 中國錢貨

	出土地・出土遺構	遺構의 性格	種類과 數量	遺構의 年代	文 獻
1	福岡縣糸島郡志摩町御末松原유적 (新町유적포함)採集・包含層	包含層	貨泉4, 半兩錢2	彌生中～後期	志摩町教育委員會
2	福岡縣前原市上籬子 包含層	包含層	貨泉1	彌生後期前半	志摩町歴史資料館, 1997
3	福岡縣前原市三坂七尾유적-土墳墓	墳墓	貨泉1	彌生後期前半	前原市教育委員會
4	福岡縣福岡市壱粕유적-採集		貨泉1	彌生後期?	福岡市教育委員會
5	福岡縣福岡市雀居유적 O28グリッド第Ⅲ面遺構檢出時	包含層・溝	貨泉2	彌生・古墳前期	福岡市教育委員會・ 福岡市教育委員會
6	福岡縣福岡市下月隈유적 SD190	河川	貨泉1	彌生～古墳	福岡市教育委員會
7	福岡縣福岡市博多유적군 1區4面遺構面上		半兩錢2	古墳前期	福岡市教育委員會
8	福岡縣福岡市西新町유적 住居蹟	住居址	貨泉1, 五銖錢1	古墳前期	福岡縣教育委員會・ 福岡縣教育委員會
9	福岡縣福岡市今宿五郎江유적 SD164・谷4-1層・M:1203-62層 G:46-96層	水路・谷	貨泉5	彌生後期	福岡市教育委員會・ 福岡市教育委員會・森本幹彦 2008
10	福岡縣福岡市元岡유적		貨泉8, 五銖錢1	彌生後期	武末純一 2008c
11	福岡縣春日市須玖坂本B-土墳	土墳	貨泉1	彌生後期	春日市史編纂委員會
12	福岡縣甘木市平塚川添유적 別區IV住居4010	住居址	貨泉1	彌生後期	甘木市教育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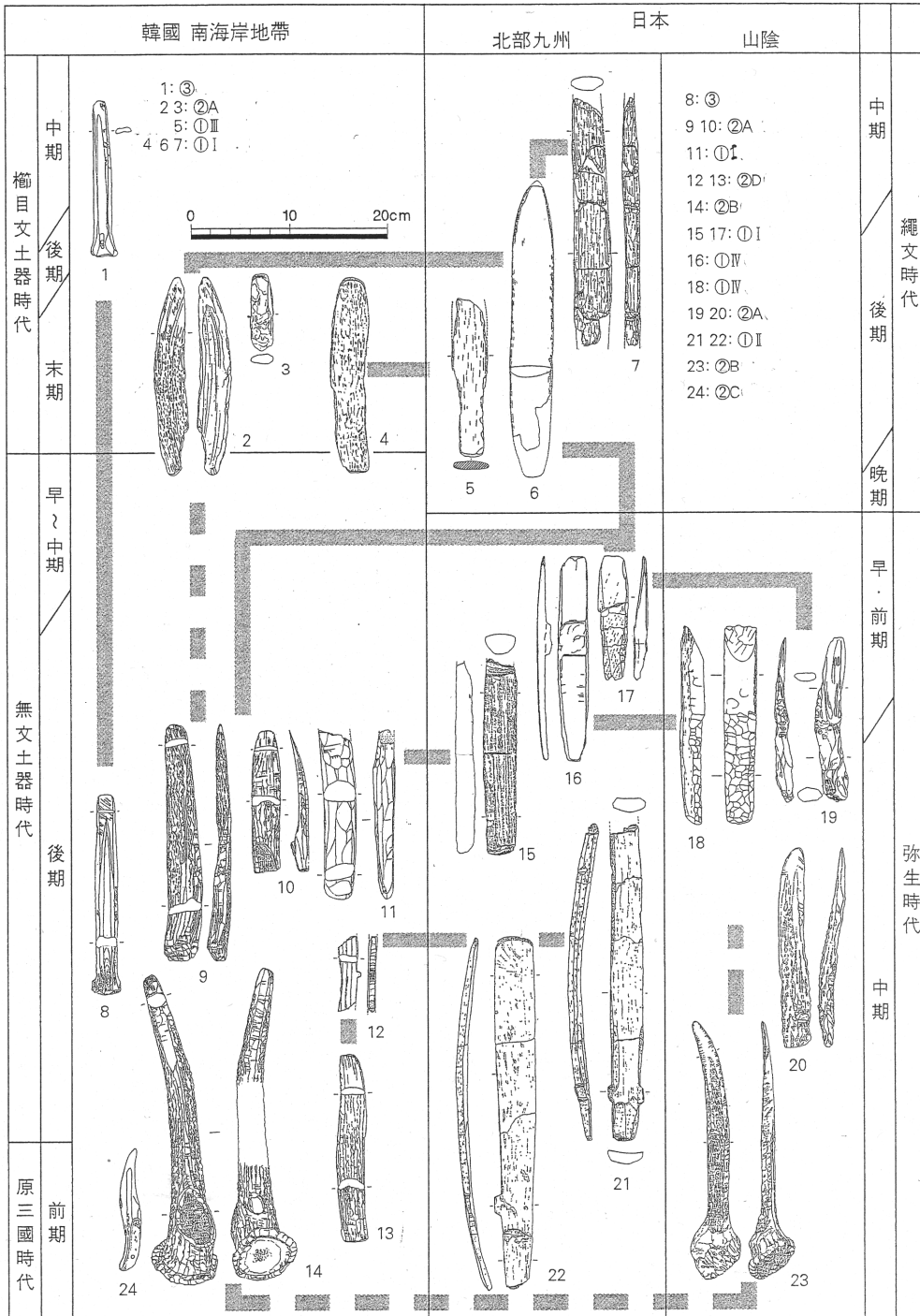
	出土地・出土遺構	遺構の性格	種類と数量	遺構の年代	文 献
13	福岡縣浮羽郡浮羽町御幸中學校校庭 箱式石棺墓	墳墓	貨泉1	彌生後期～ 古墳初頭	高倉洋彰 1989
14	福岡縣北九州市守垣ユヅ 水溜り遺構最下部(第1地点グライ土)	水溜り遺構	五銖錢1	彌生中期後半	(財)北九州市教育文化事業團埋藏 文化財調査室 1986
15	熊本縣菊池市外園ユヅ 採集	包含層?	貨泉1	彌生後期?	岡崎敬 1982
16	熊本縣菊池郡七城町うてなユヅ 住居蹟	住居蹟	貨泉1	彌生後期終末	高倉洋彰 1989
17	熊本縣下益城郡城南町新御堂ユヅII -5住居, 採集	住居蹟, 表採	貨泉1, 半兩錢1, 大泉五十1	彌生後期後半	城南町教育委員會
18	長崎縣壹岐市原の辻ユヅ 不條地區(2號濠, E區2層)・高元地區 (1層 1號溝(濠)・V區包含層)・ 八反地區(E區土器溜 E區2號田河道II層 ・南區5層 南區5・八反6層)	溝(濠), 土器溜 包含層	貨泉11, 五銖錢1, 大泉五十1, 不明錢	彌生後期終末	長崎縣教育委員會 岡崎敬 1982, 高倉洋彰 1989
19	長崎縣壹岐市車出ユヅ BT2區		貨泉1	彌生中期末～ 後期	長崎縣教育委員會・ 郷ノ浦町教育委員會
20	長崎縣壹岐市戸田ユヅ 確認調査トレンチD區4V層	包含層	貨泉1	彌生後期?	長崎縣壹岐郡郷ノ浦町教育委員會
21	長崎縣對馬市シゲノダンユヅ 板石下	埋納土壇	貨泉1	彌生後期初頭～ 前半	高倉洋彰 1989
22	長崎縣對馬市セノサエユヅ		貨泉1	彌生後期前半	依寛司・早田利宏・阿比留伴次 2003
23	佐賀縣神埼市吉野ヶ里ユヅ (田一本松地區・第22調査區自然流路)	自然流路	貨泉1	彌生後期?	佐賀縣教育委員會
24	佐賀縣武雄市東宮裾ユヅ 甕棺墓	墳墓	貨泉6～8	彌生後期初	柴元靜雄 1970
25	佐賀縣武雄市祇園社ユヅ 甕棺墓	墳墓	錢種不明	彌生?	岡崎敬 1982
26	大分縣大分市松崎ユヅ	不時發見	五銖錢2		小田富士雄 1982
27	愛媛縣松山市榑末立添ユヅ SB9を覆う包含層基本層位第III層中	包含層	貨泉1	彌生後期～古墳	(財)松山市生涯學習振興財團埋藏文 化財センター
28	山口縣下關市武久浜墳墓群 ST-7	墳墓(箱式石棺)	半兩錢1	彌生中期後半	山口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2
29	山口縣宇部市沖ノ山ユヅ	埋藏遺構?	半兩錢20, 五銖錢6	彌生中期後半	小田富士雄 1982
30	鳥取縣鳥取市青谷上寺地ユヅ 7區 7區②層 8區①層 5區不明	溝, 包含層	貨泉4	彌生後期	(財)鳥取縣教育文化財團
31	岡山縣倉敷市上東ユヅ 波止場狀遺構	波止場狀遺構	貨泉1	彌生後期	岡山縣教育委員會
32	岡山縣岡山市高塚ユヅフロヤ調査區内袋狀 土壇 18・堅穴住居 35	土壇 住居蹟	貨泉25	彌生後期前	岡山縣教育委員會

	出土地・出土遺構	遺構의 性格	種類과 數量	遺構의 年代	文 獻
33	兵庫縣豊岡市田多地引谷유적 7號墳第3主体部	墳墓(箱式石棺)	五銖錢1	彌生終末	渡邊昇 1995
34	兵庫縣洲本市宇山牧場1號墳	墳墓?	五銖錢5	彌生終末~ 古墳前期	渡邊昇 1995, (財)山口縣教育財團, 山口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35	大阪府大阪市瓜破유적 土壙, 包含層	土壙 包含層	貨泉2	彌生後期前半~ 中近世	文殊省三 1986, (財)大阪市文化財協會
36	大阪府東大阪市巨摩廢寺 後期V(Ⅲ) 遺構面	包含層	貨泉1	彌生後期中頃	(財)大阪文化財センター
37	大阪府八尾市龜井유적 SK3004・ BF-9彌生包含層	土壙, 包含層	貨泉4	彌生後期中頃~ 後半	大阪府教育委員會, (財)大阪文化財 センター, (財)大阪文化財センター
38	滋賀縣長浜市鴨田유적 川蹟内トレンチ2	旧河道	五銖錢1	彌生終末	丸山雄二 1995
39	山梨縣甲府市米倉山B유적 1號溝	溝	貨泉1	彌生前期終末~ 古墳前期	山梨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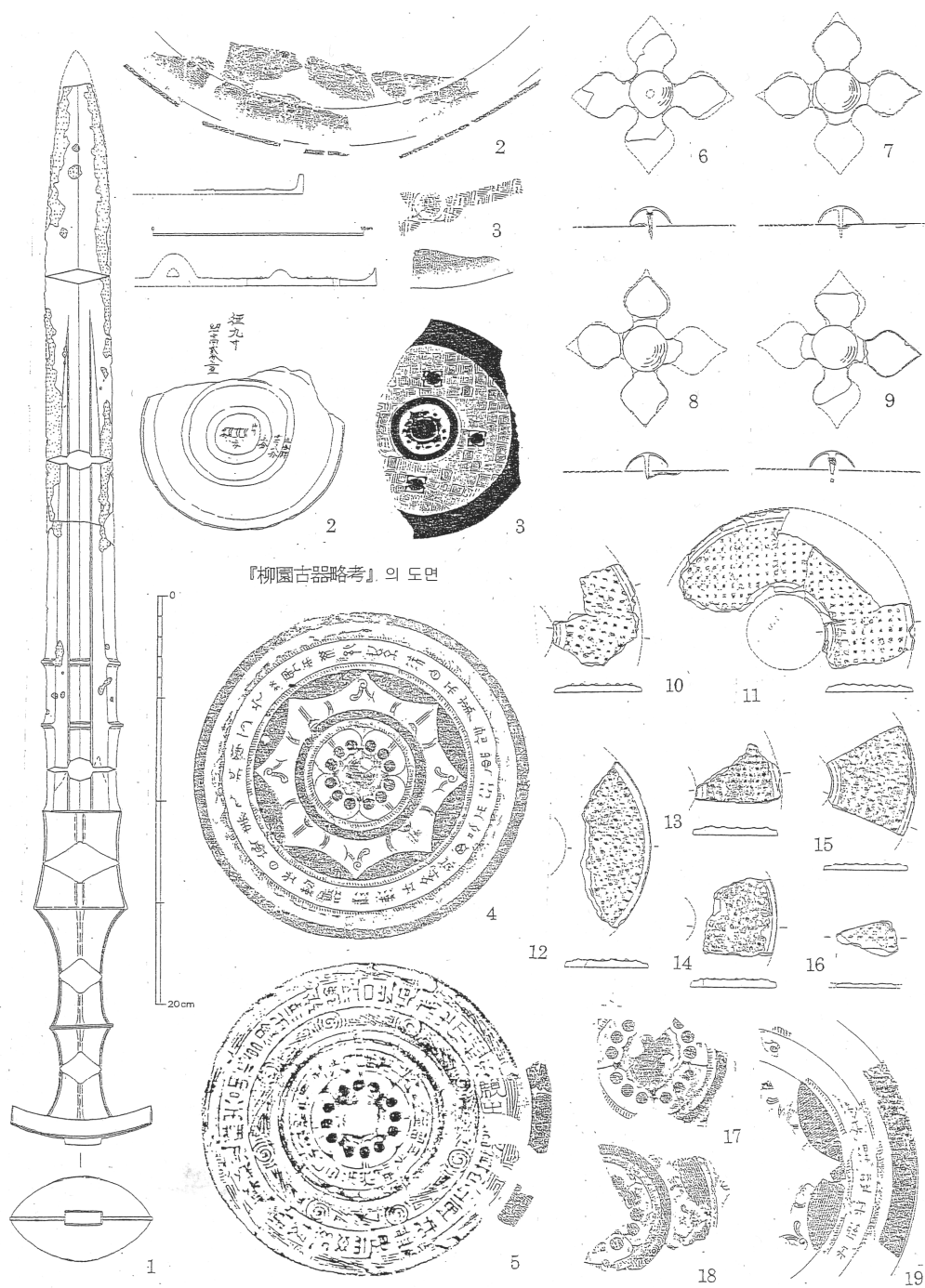
※ 福岡市教育委員會의 比佐陽一郎에게서 제공받은 表를 기초로 作成하였다.



도면 1. 御床松原 유적의 漁具·鐵器(1~25)와 다호리유적의 鐵製釣針



도면 2. 한일 전복따개 展開圖試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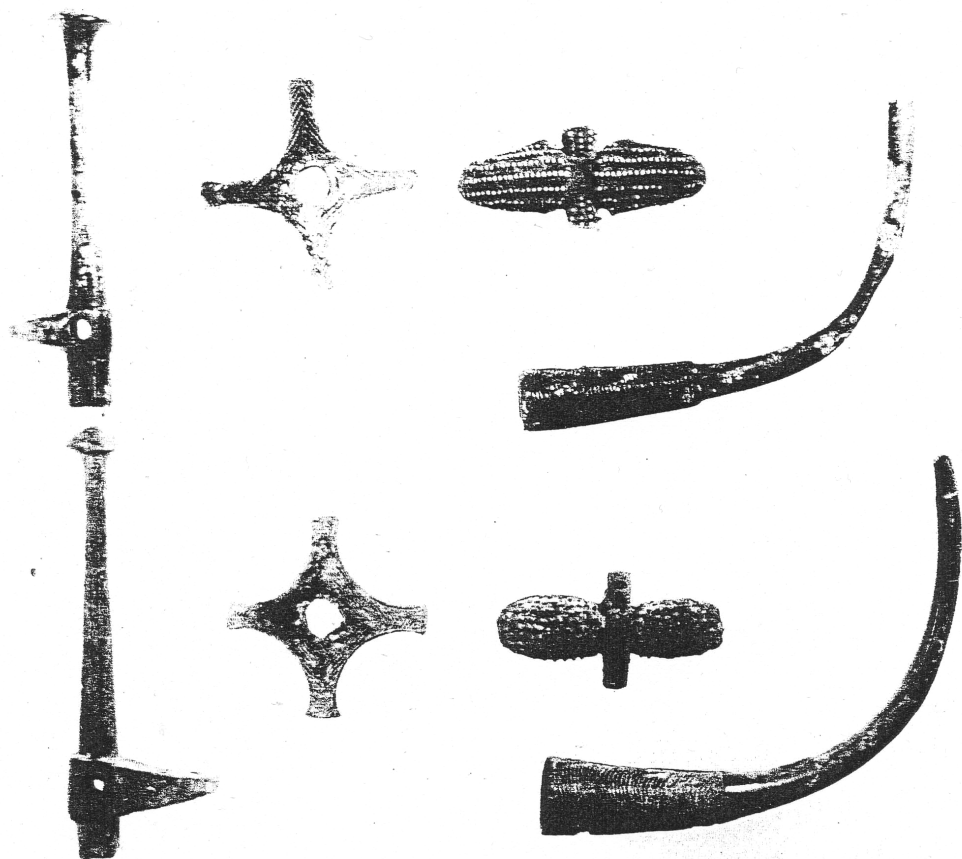


도면 3. 三雲南小路 王墓(1號墓)의 부장품

1 中細形銅劍, 2~5・17~19 中國鏡, 6~9 金銅四葉座金具, 10~16 琉璃壁



도면 4. 三雲・井原유적의 전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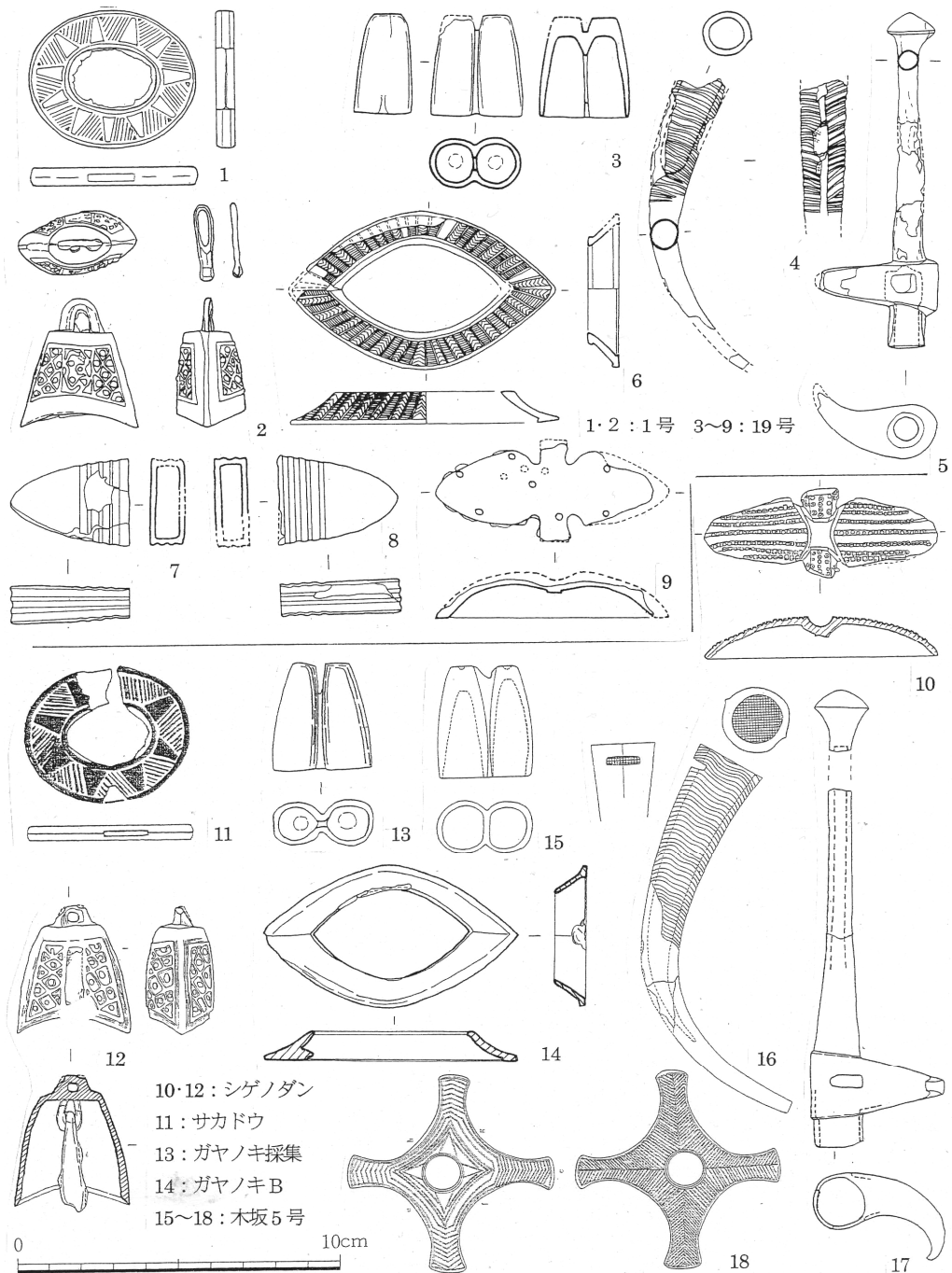


1 한일 小型異型靑銅器 (上: 唐崎・シゲノダン, 下: (伝)洛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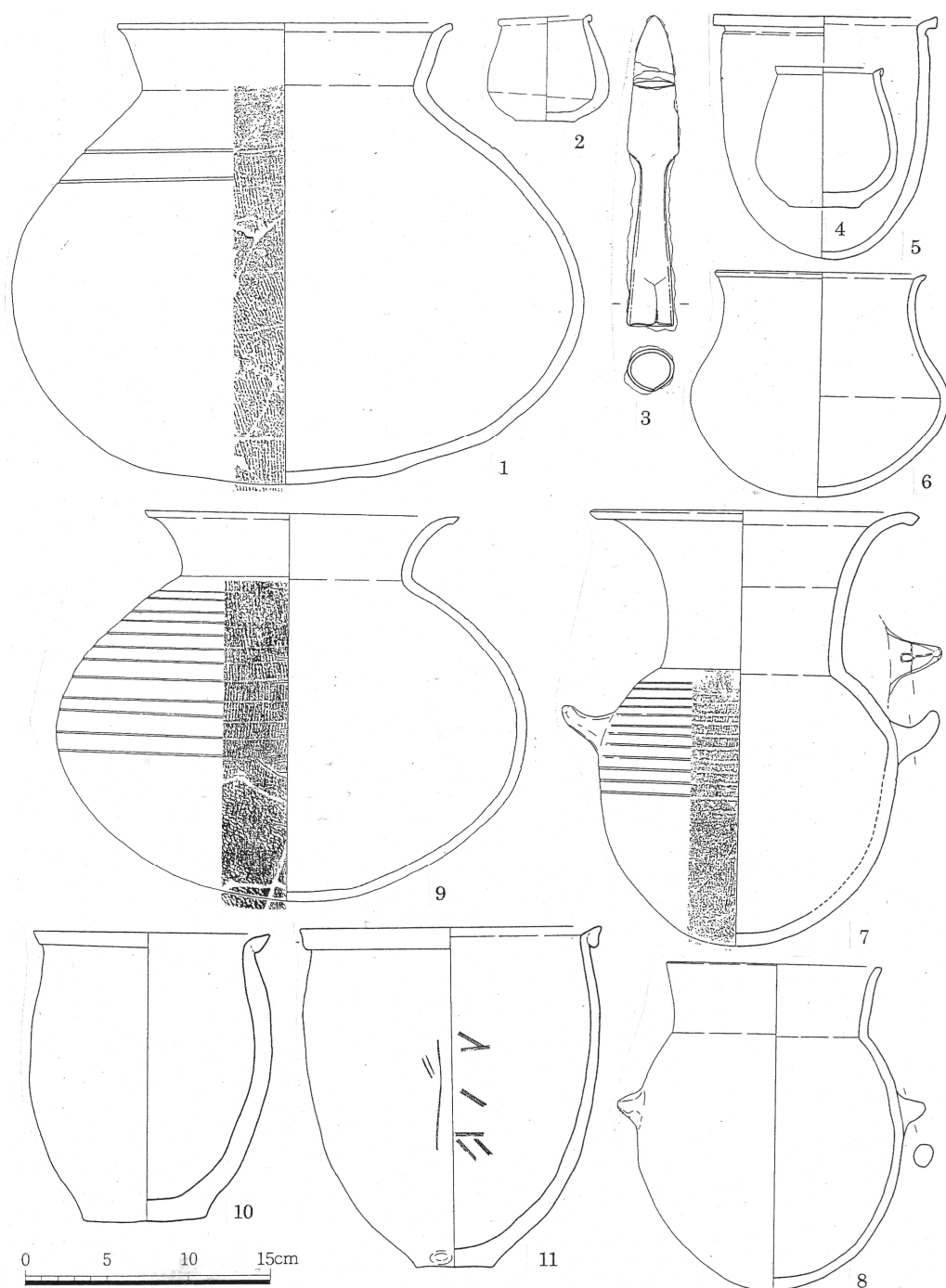
도면 5. 彌生 후반기의 한국계청동기

2 한일의 한국산 소동경 (左 魚隱洞、右 二塚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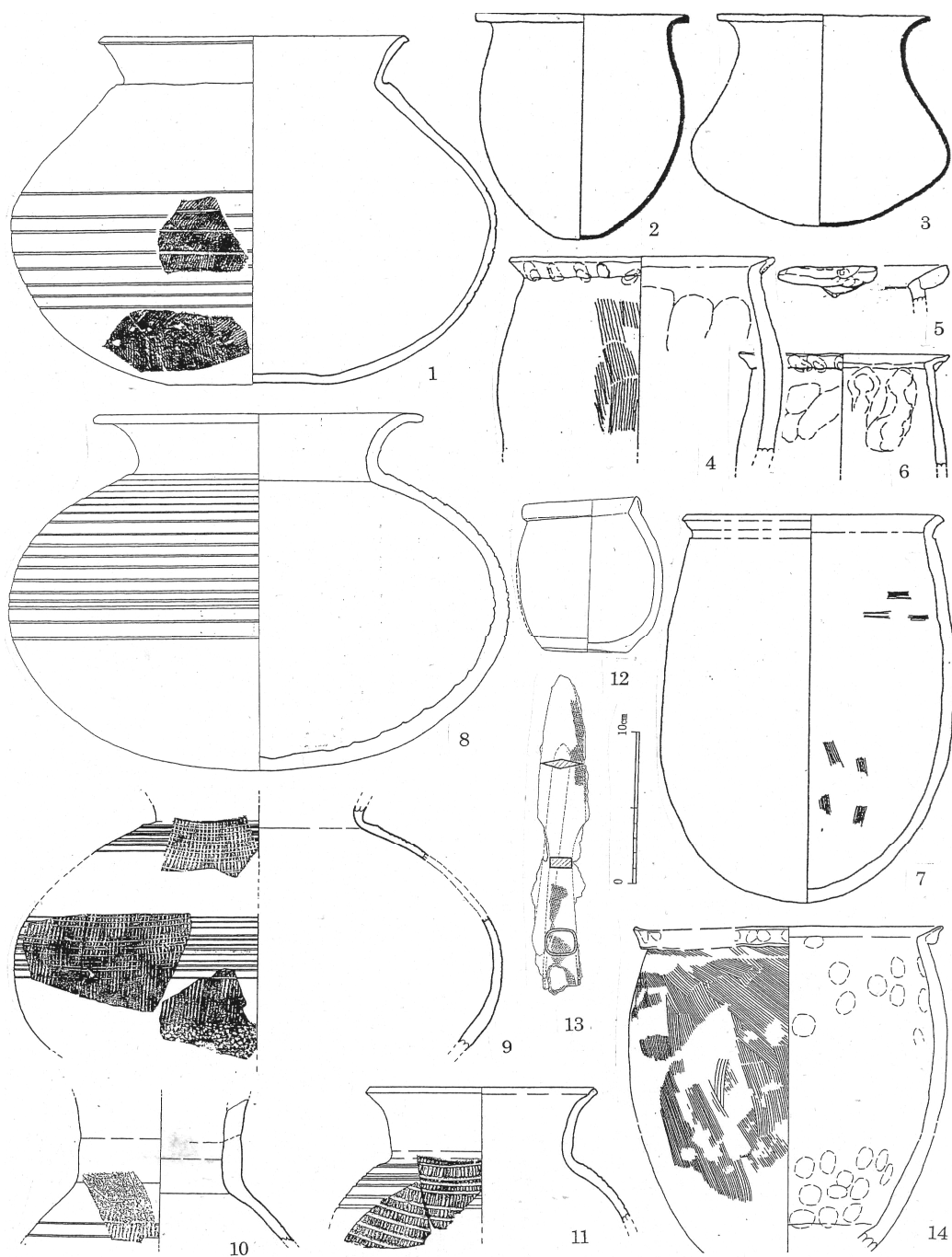
도면 6. 다호리(1~9)와 對馬(10~18)의 청동기

1·11 平環, 2·12 馬鐸, 3·13·15 雙頭管狀銅器, 4·16 角形銅器, 5·17 有鉤笠形銅器
 6·14 鐏金具, 7·8 盤部金具, 9·10 栗笠文把頭飾, 18 有孔十字形銅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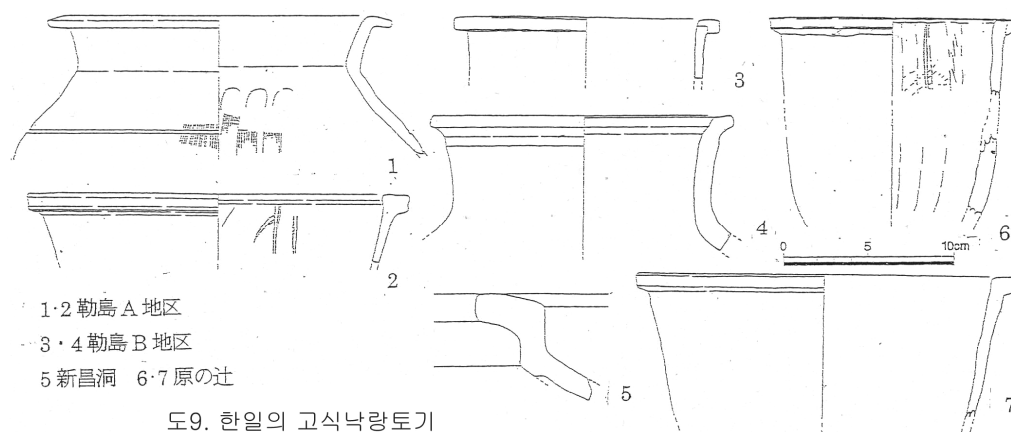
도면 7. 다호리유적의 삼한토기

1: 35호, 2·3: 72호, 4: 34호, 5: 52호, 6~8: 31호, 9: 64호, 10: 18호, 11: 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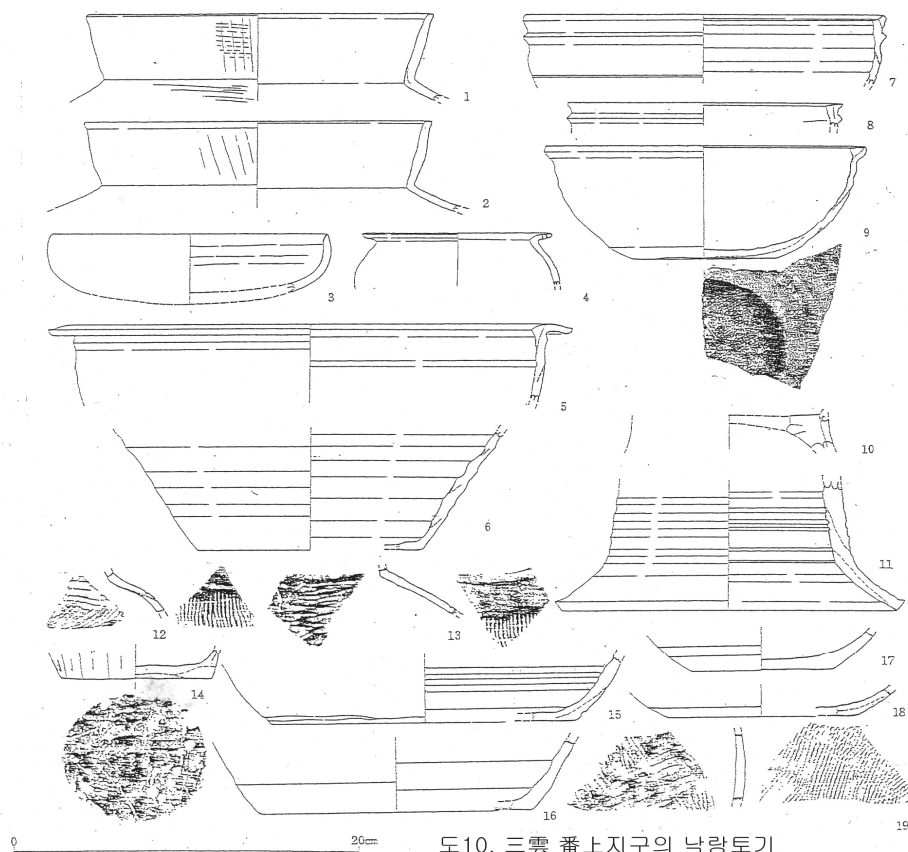
도면 8. 일본의 삼한토기

1 小姓島, 2・3 佐護白岳, 4~7 三根유적 山邊地區, 8 カラカミ, 9~11 原の辻
12 比惠・那珂유적, 13 立岩36号, 14 青谷上寺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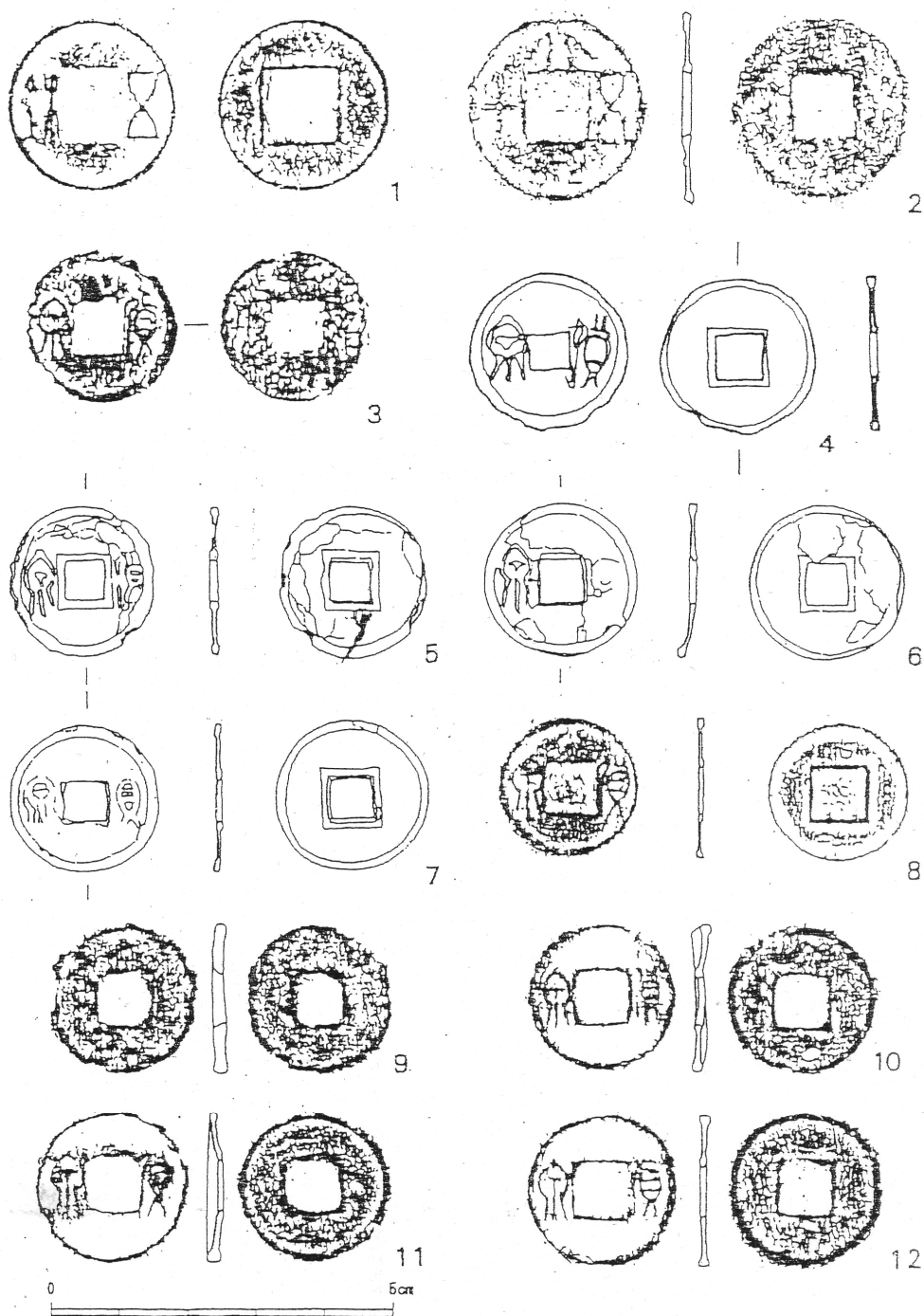
도9. 한일의 고식낙랑토기

도면 9. 한일의 고식 낙랑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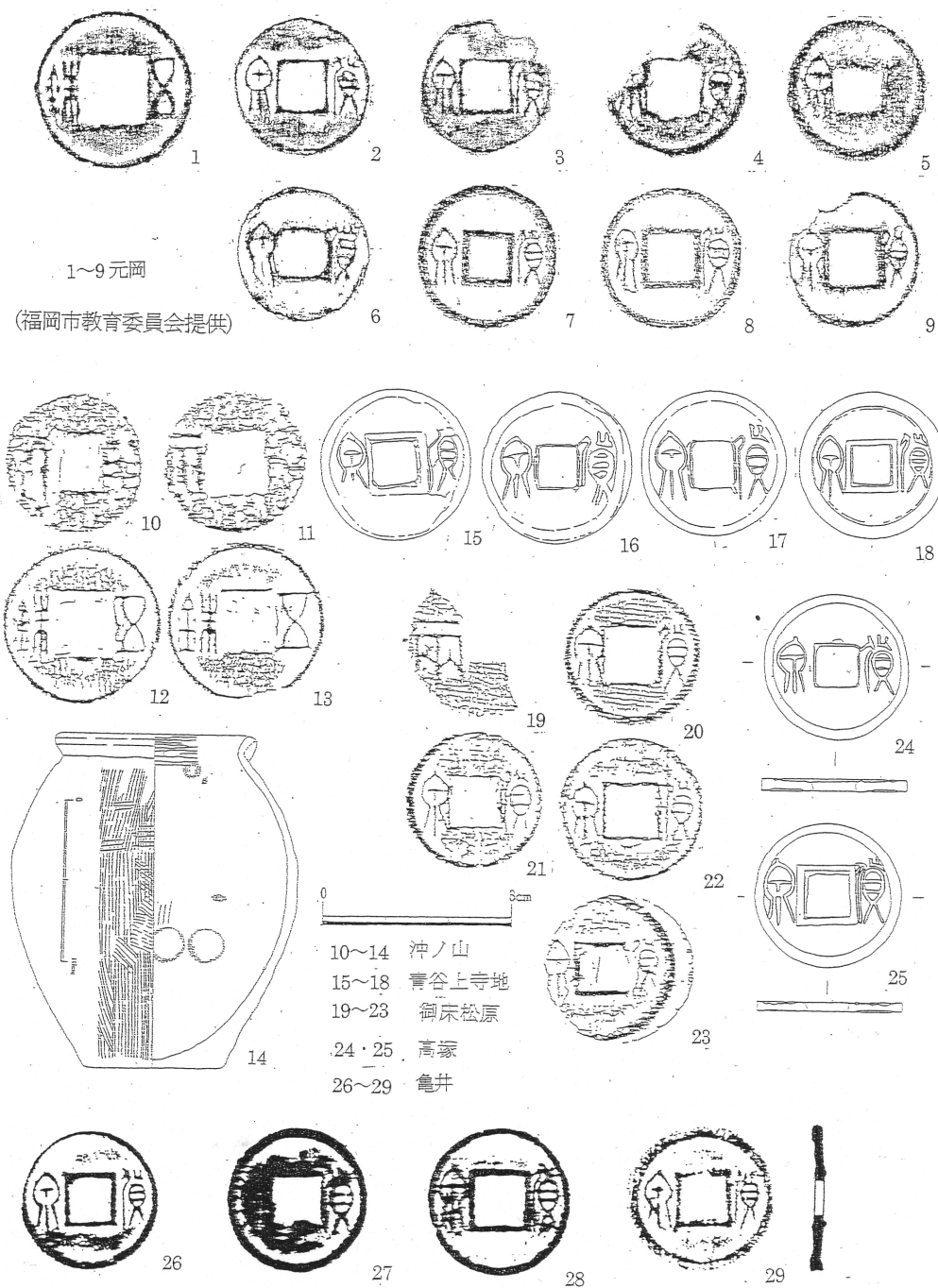


도10. 三雲 番上지구의 낙랑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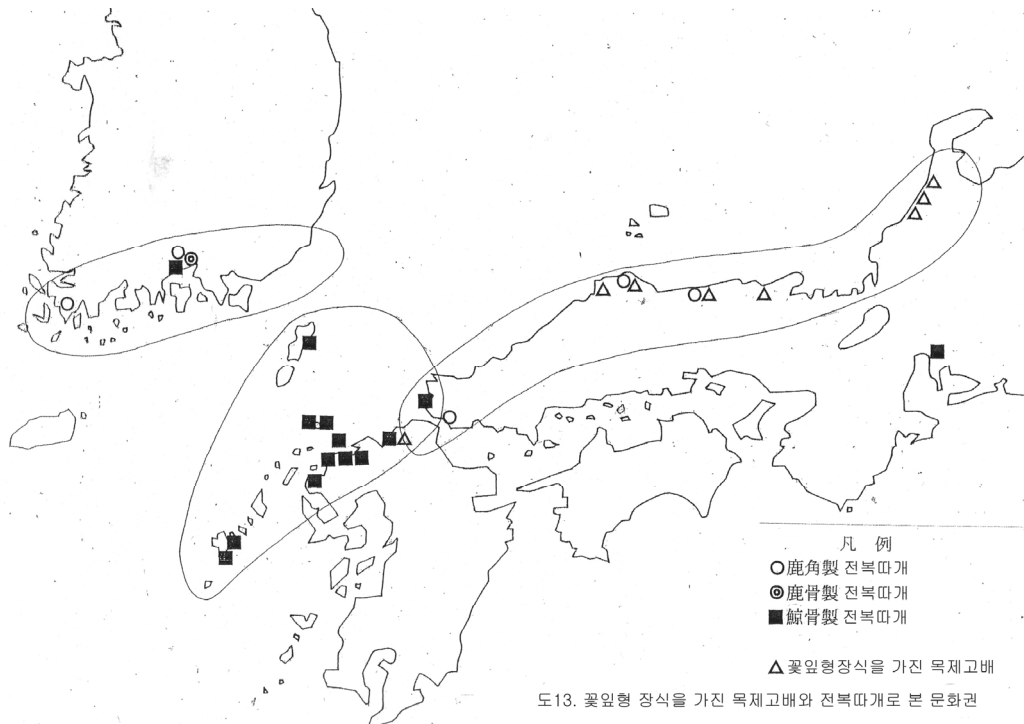
도면 10. 三雲番上地區의 낙랑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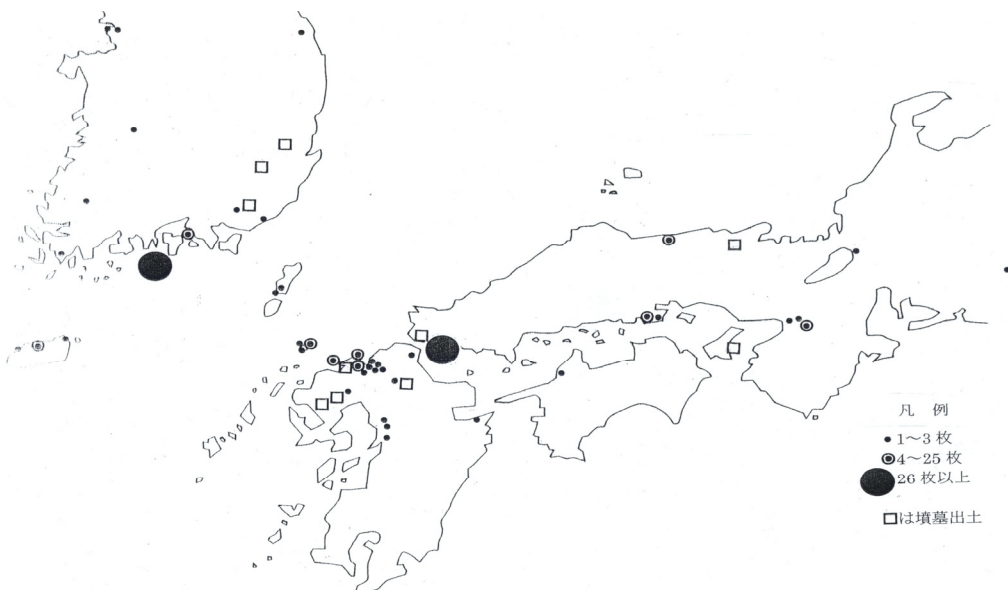
도면 11. 일본열도의 중국 錢貨(1) 原の辻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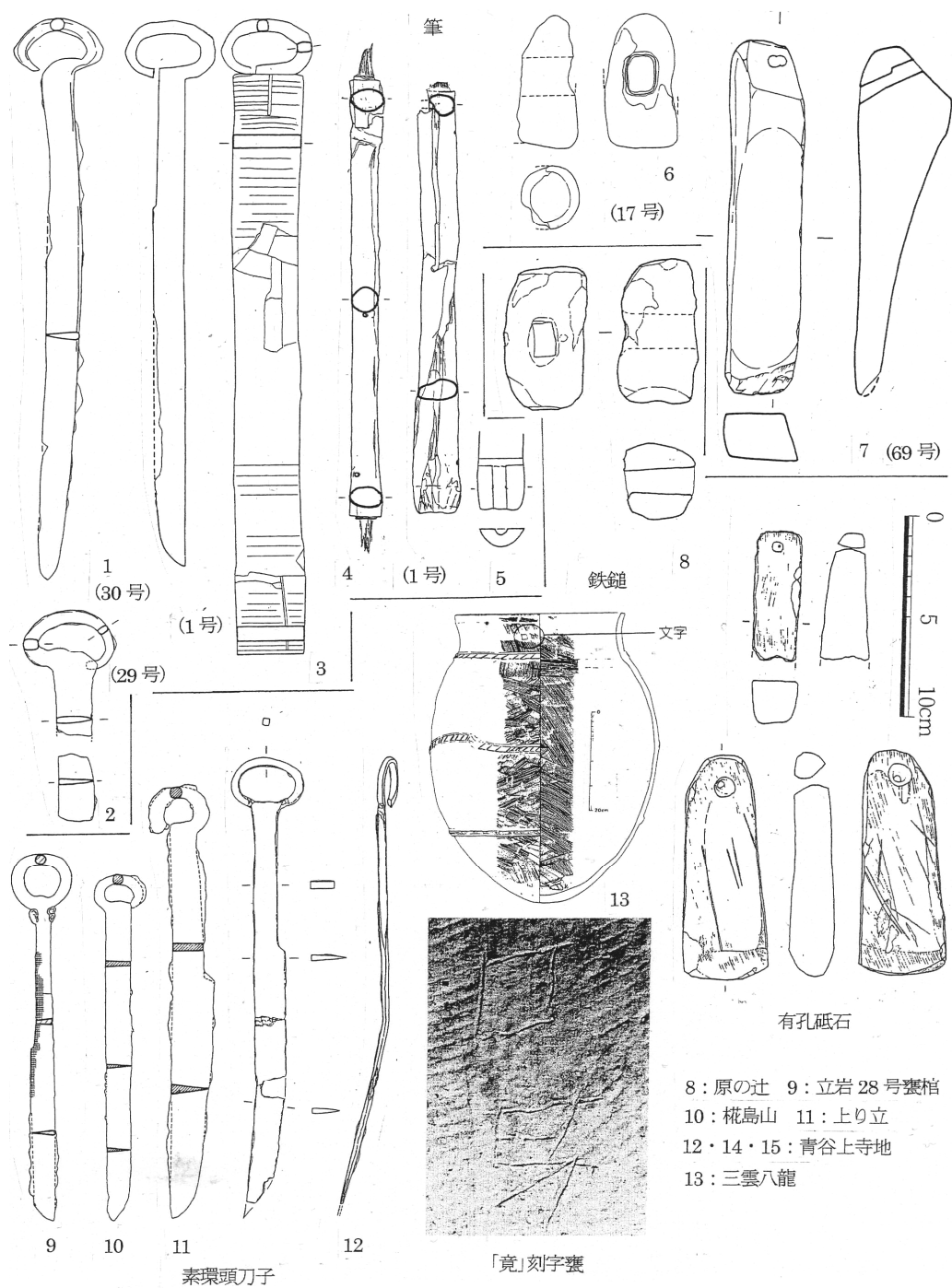
도면 12. 일본열도의 중국 錢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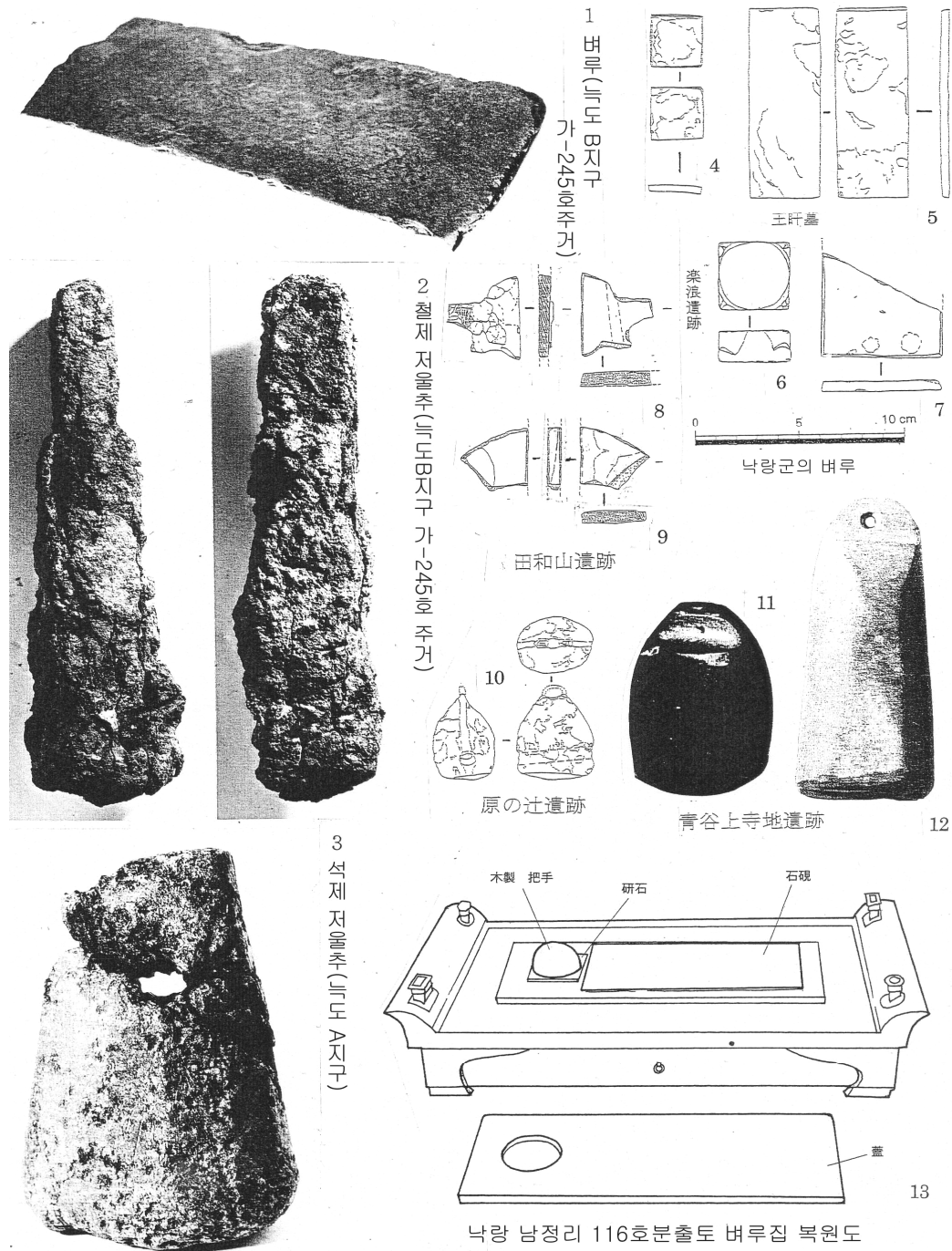
도면 13. 花卉狀裝飾을 가진 목제고배와 전복따개에 본 문화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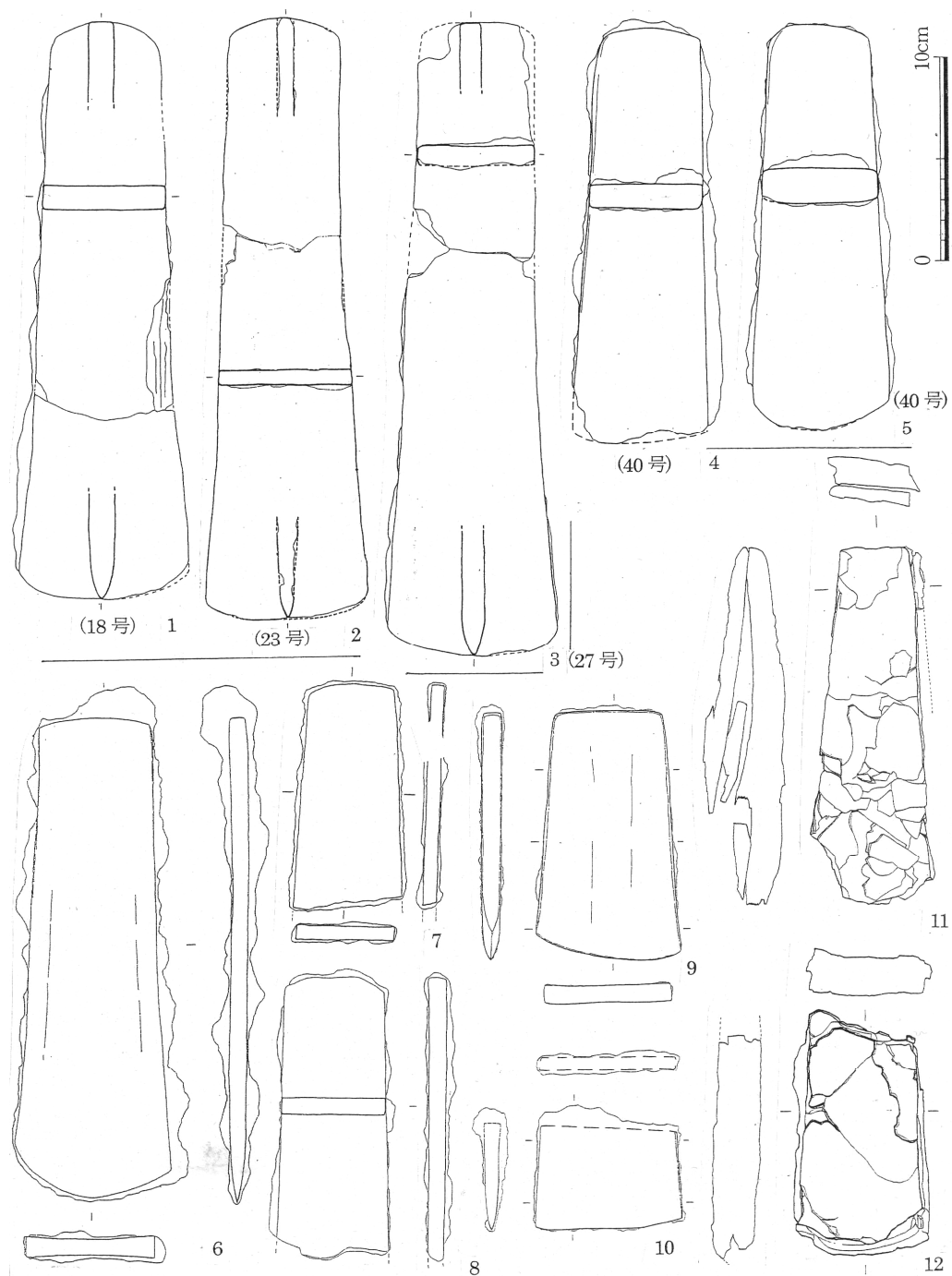
도면 14. 한일의 중국 錢貨(원삼국시대~삼국시대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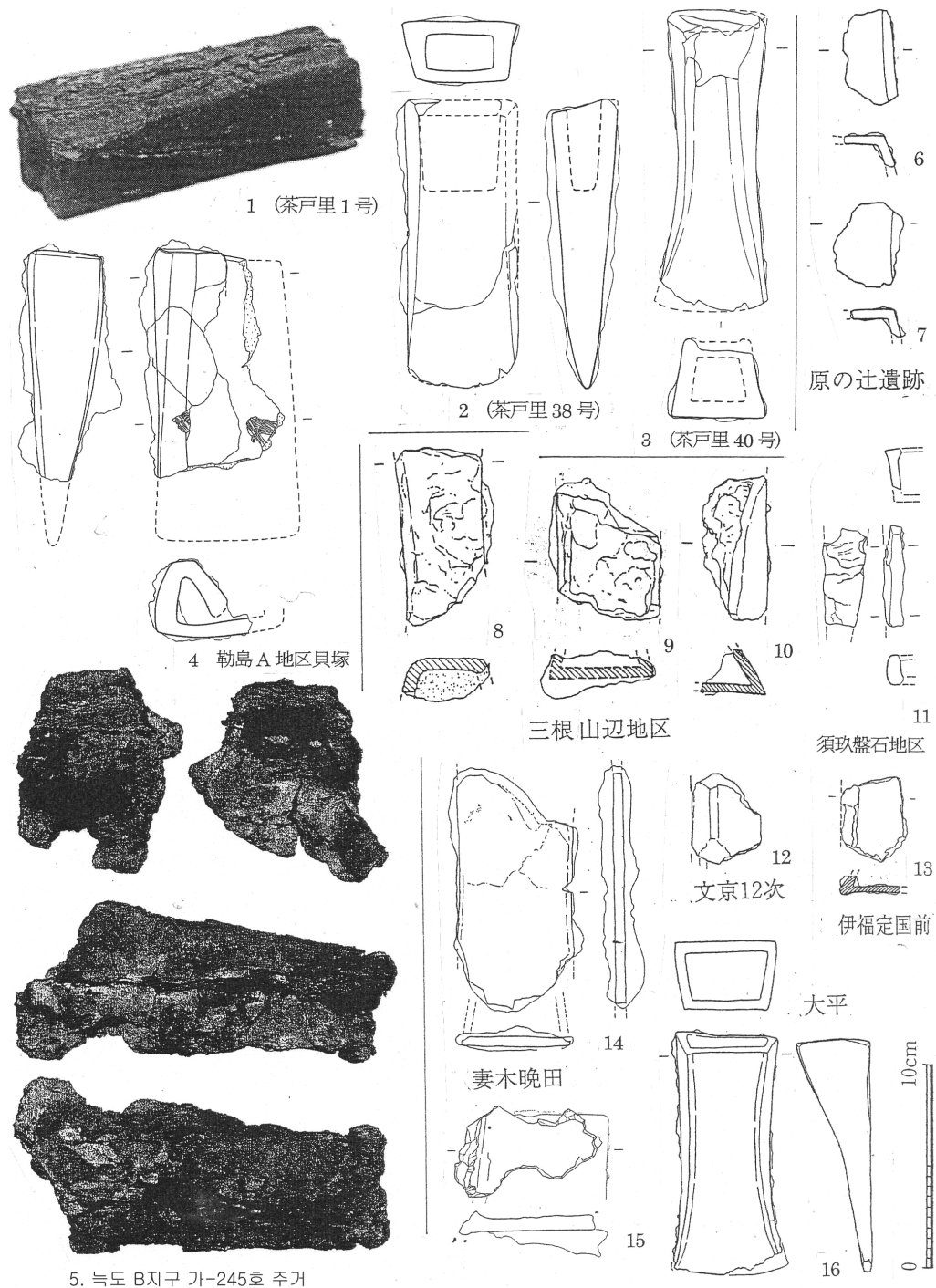
도면 15. 다호리유적 출토품(1~7)과 관련되는 일본의 유물(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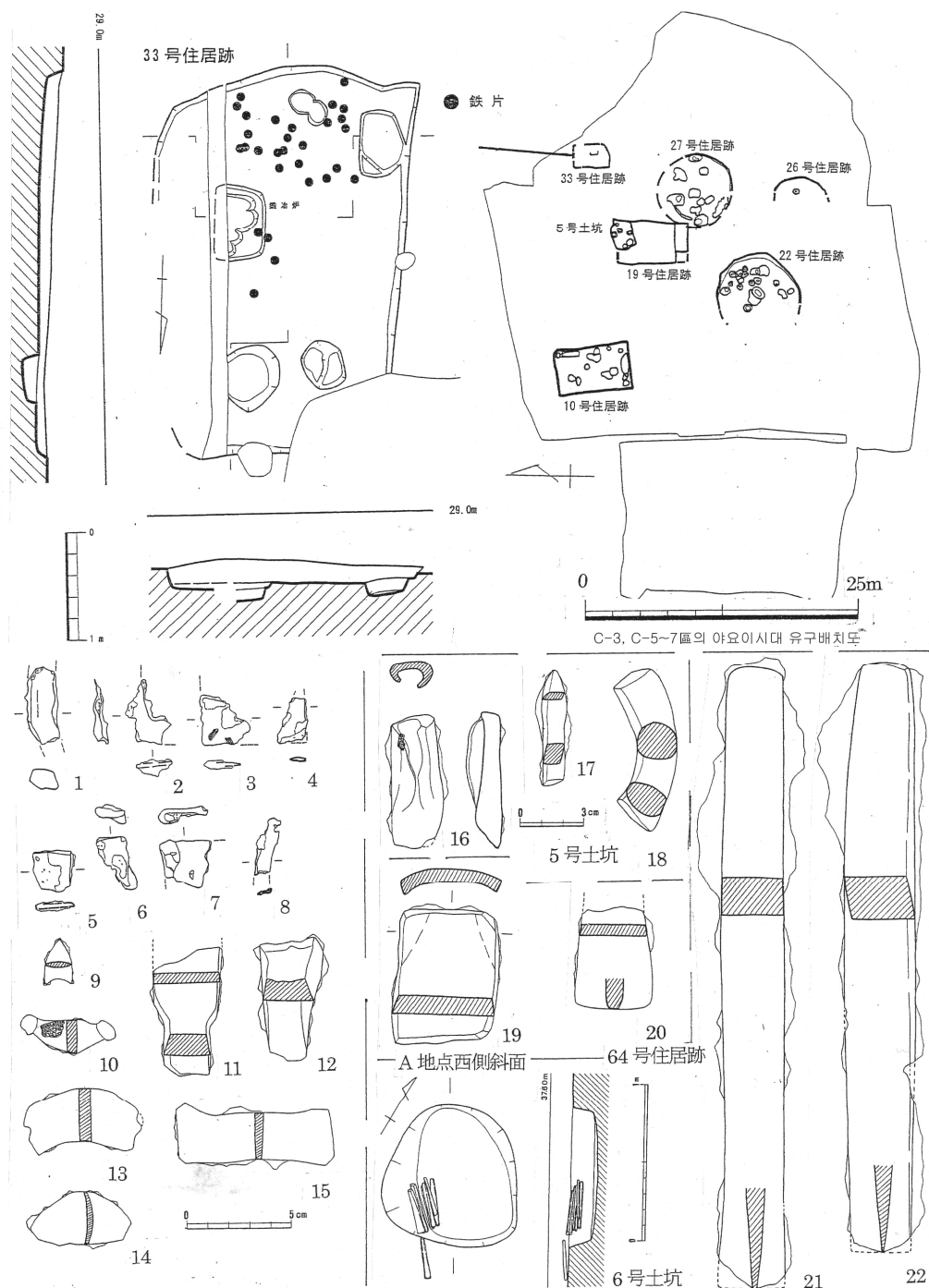
도면 16. 한일의 저울추와 벼루



도면 17. 다호리(1~5)와 일본(6~12)의 대형 판상철부
6 千鳥, 7 前田, 8 御床松原, 9・10 靑谷上寺地, 11・12 神の崎



도면 18. 한일의 주조제형철부



도면 19. 春日市 赤井手地區의 철기제작유물과 단야 공방

茶戸里遺跡と日本

武末純一*

I. はじめに

茶戸里遺跡の発掘研究成果の中で、私にとって衝撃だったのは、中国の漢や楽浪と文字を使って交易する茶戸里1号墓被葬者像の提唱であった(李健茂1992)。日本列島(以下、日本)の弥生時代中期後半に相当する茶戸里1号墓から出た中細形銅矛c類は、日本に多くて鋳型もあり、たとえ茶戸里1号墓例が韓国産であっても、被葬者は日本となんらかの関係を持ち、日本でも文字使用の可能性が浮上するからである。本発表では、漁撈だけでなく海上交易活動も主な生業とする集落を「海村」として設定し、韓半島(以下、韓国)の原三国時代に併行する弥生時代後半期(中期後半～後期)の韓日交流の実態を、茶戸里遺跡の出土品から展開する形で述べる。

II. 海村の設定

弥生時代に出現した農村は、縄文時代の一体化した海と山との中に割り込んで、海の生業や山の生業を主体とする村を生み出す。もちろん農村でも海や山の生業活動があるが、その比重は低い。農村が圧倒的に多い中で、すべての集落遺跡の中から海村・山村を抽出する目安は、石庖丁の数量である。

海村の典型例は福岡県志摩町御床松原(ミコマツバラ)遺跡で、ここは隣接する新町(シンマチ)遺跡も含めて一つの村である(志摩町教育委員会1983・1987・1988)。この村は、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にかけて石錘が異常に多く、鉄製の釣針やアワビおこしもあり、網漁の比重が高く、潜水漁法も行なわれていた。また、ここの石庖丁の数量(12点)は、同時期の堅穴住居の数が同様に、しかも農村遺跡である佐賀県鳥栖市安永田(ヤスナガタ)遺跡の石庖丁の数量(63点)のおよそ1/5だから、農作業の比率もその程度であった。したがって、御床松原遺跡のように、周囲の遺跡よりも漁撈具の比

* 福岡大学

率が高い沿岸部の集落は、海村の可能性が高いことになる。また、地理環境や魏志倭人伝の『南北市糴』の記述から海上活動の比率が高かったとみられる対馬でも、これまで石庖丁はほとんどなく、島全体が海村で占められたとみられる。壱岐では原の辻(ハルノツジ)遺跡とカラカミ遺跡が代表である。また、倭系遺物が顕著な韓国の靑島遺跡(中期が主体で下限は後期初)も漁具が卓越して石庖丁は少なく、原三国時代の海村である。

ここで注目されるのが、潜水漁用の鯨骨製および鹿角製のアワビおこし(武末 2008b)や、外海用の鹿角製の西北九州型結合釣針などの北部九州系の漁撈具が靑島遺跡で一定量みられる点である。北部九州のアワビおこしが鯨骨製なのに対して、韓国のアワビおこしは、有文土器時代でも無文土器時代でも鹿の中手足骨製が基本で、南海岸地帯に分布する。靑島遺跡出土品では鯨骨製は筆者分類(第1表)の①Ⅰ類で弥生中期前半がほぼ下限とみられ、そこから派生した鹿角製の②A類は靑島Ⅰ期(弥生前期末～中期前半併行)から靑島Ⅱ期(弥生中期後半～後期初頭併行)に存在する(図2)。いっぽう基部に突起をもつ鯨骨製品(①Ⅱ類)は北部九州で中期前半に出現したとみられ、靑島で鯨骨製品はないものの、それを模倣した②D類が厳然として存在し、そこから独自に展開する。また、鯨骨製アワビおこしは西北九州型結合釣針とともに山陰地域にも伝播して、やはり鹿角製アワビおこしを生み出し、角座を取り込む山陰独特の例(図2-23)が現れる。この角座を取り込むアワビおこしは靑島遺跡でも出ている(図2-14)。したがって、鹿角製西北九州型釣針の存在も勘案すると、靑島遺跡に移住した弥生人の中には、北部九州の『倭の水人』(岡崎敬 1968)がかなり居て、山陰地域の「水人」も一部含まれており、文化変容を起こすほど永く居住した。そして、弥生時代中期には韓半島南部の海村と西日本(とくに北部九州)の海村のあいだには、相互に往来する海村独自の世界が構築されたと見られる。

Ⅲ. 楽浪土器・三韓土器

韓国で原三国時代が始まる弥生時代の中期後半(紀元前1世紀)には、日本列島の各地で地域政権が明確になる。ツクシ政権内部では伊都(伊)国と奴(ナ)国が台頭して他の国々の上に立ち、王が現れて、王墓を含めた首長層墓の副葬品は、前漢鏡やガラス璧などの中国系が主流になる(図3)。これは、楽浪郡など漢四郡の設置で、ツクシ政権の首長層の権威の背景が古朝鮮から前漢に変化したためで、それが後期には後漢に引き継がれる。

ただし、韓国との交流はさらに盛んになる。韓国産の青銅器や鉄器、三韓土器(原三国時代の南韓の土器)や楽浪土器(北韓の楽浪郡や帶方郡などの土器)が、北部九州を中心に西日本一帯で出土する。また、勒島遺跡の勒島Ⅱ期には中期後半～後期前半の弥生系土器が、前時期と変わらず大量に出て、交流の範囲は中部・東部九州や東瀬戸内地域までさらに拡大する。また、嶺南地域を中心に中広形・広形の銅矛・銅戈や小型仿製鏡などの北部九州産青銅器(ほとんどが奴国産)も見られる。

この中期後半～後期には農村が巨大化して円形環溝の中に方形環溝があらわれる。その様子は、福岡県前原市三雲・井原(ミクモ・イワラ)遺跡の王墓である南小路(ミナシヨウジ)1号・2号甕棺墓に隣接する下西(シタニシ)地区で明確にとらえられた。楽浪郡治の太守の役所や三韓の方形首長層居宅に招じ入れられて直接情報を得た倭人たちは、支配のための方形環溝をようやく日本で実現したのである。また、こうした首長権力の突出は、それに反発する一般民衆をなだめるための大型青銅祭器を、各地域で生み出した。

この時期には、海上交易活動のほうが卓越する海村もある。そうした海村で特徴的な遺物に見られる遺物に楽浪土器・三韓土器と中国銭貨があり、それらの遺物は遺跡の性格によってありかたが異なる。

1. 茶戸里遺跡と対馬

茶戸里遺跡ともっとも関連が深いのは対馬の諸遺跡と見られる。具体的な根拠は茶戸里遺跡から出た異型青銅器をはじめとする小型青銅器(図6)で、1号墓の平環は対馬市の峰町サカドウ遺跡、馬鐸は豊玉町シゲノダン・豊玉町佐保(サホ)ソウダイでみられ、19号墓の双頭管状銅器は峰町ガヤノキ採集品・峰町木坂(キサカ)5号墓・豊玉町唐崎(トウザキ)墓、有鈎笠頭形銅器は木坂5号墓・唐崎墓・峰町トウトゴ山1号墓、角形銅器は木坂5号墓・唐崎墓・上県町佐護白岳(サゴシラタケ)・峰町サカドウ、鏢金具はガヤノキB・木坂7号墓・豊玉町黒木南鼻(クロキミナシバナ)墓・豊玉町佐保浦赤崎(サホウラアカサキ)2号墓、盤部金具は唐崎墓、粟粒文把頭飾はシゲノダン・美津島町キロスガ浜などで類似品が出ているが、日本の他地域ではほとんど見られない。韓国ではほかに(伝)洛東里(図5)や馬島に例があり、対馬の青銅器は全体的に嶺南地域でも南海岸地帯との共通性が高い。これは、他に対馬から出る有孔十字形銅器や半球形飾金具でも同じである。

いっぽう楽浪土器は、半球形平底の洗形鉢が後期後半～末の墳墓にみられるが、各遺跡1～2点に過ぎず、「対馬型」と呼んだ(武末純一1991)。墳墓の副葬土器も、峰町小姓島(コシヨウジマ)3号墓や木坂遺跡、佐護白岳例など、全体的に嶺南地域の三韓土器の方が卓越し、中期後半から見

られる(図7・8)。こうした様相からみて、対馬では韓国南部の三韓(とくに弁韓)との日常的な交流が主体であった。これは集落遺跡である対馬市峰町三根遺跡山辺(ヤンベ)地区(峰町教育委員会2002)でも、楽浪土器より赤焼および瓦質の三韓土器が卓越することから裏付けられる。また、鉄矛や鉄剣は、対馬から北部九州に類例がある。

2. 壱岐と北部九州沿岸の海村

壱岐島では、楽浪土器が遺跡内に散漫に分布するカラミ遺跡が古くから知られ、「カラミ型」としたが、実際の様相は1990年代から継続的に実施された原の辻遺跡の調査で明確になった。原の辻遺跡の楽浪土器と長頸壺や広口壺などの三韓土器は、ほぼ1:1のようである。楽浪土器の大半の時期を後期後半以降に限定しようとする論もあるが、滑石混入の植木鉢形土器もあって(図9)、三韓土器とともに上限は中期後半まで古くなる。またこれらの植木鉢形土器は炊事用であり、楽浪人の居住を示すとみられる。

いっぽう御床松原遺跡では楽浪土器が3点でており、その中の滑石混入土器は、弥生後半期でも古段階に位置づけられる。また、近年調査された福岡市西区今宿五郎江(イマジクゴロウエ)遺跡や元岡(モトオカ)遺跡では、弥生後半期でも新段階を中心に楽浪土器が出ている。これらはいずれも伊都国の範囲にあり沿岸部に位置する。伊都国で弥生時代後半期に楽浪土器が卓越することはすでに筆者も述べているが、元岡遺跡では三韓系の土器が多い。一方奴国では三韓土器が多いが、福岡市博多区比恵・那珂(ヒエ・ナカ)遺跡では古墳時代初頭頃に楽浪土器が多くなるようである。

3. 三雲・井原遺跡

このように楽浪土器はほとんど北部九州沿岸の海村に集中しており、内陸部の遺跡では例外的に伊都国の国邑である三雲・井原遺跡に集中する。とくに番上(バンジョウ)Ⅱ-5地区土器溜では、わずか88㎡で30点以上の楽浪土器が集中して出た(図10)ため、筆者は「番上型」と呼び、楽浪人の集団的居住を想定した。これに対しては、「原の辻遺跡も楽浪系土器が多量に出土しているが」、「楽浪系土器だけでは三雲遺跡との差異を見出せない」との意見もある(寺井誠2007)。しかし筆者は楽浪系土器の量だけで、原の辻遺跡も含まれる「カラミ型」と、「三雲番上型」をわざわざ分けて設定したのではない。原の辻の楽浪土器が広く散漫に出るのに対して、三雲では番上地区に集中しており、その地区のほかにはあまり出ないという明確な差異があるのである。

4. 韓国の古式楽浪土器

こうした楽浪土器は靑島遺跡A地区でも靑島Ⅱ期にみられ、ナ-61号焼成遺構では、炊事用の滑石混入植木鉢形土器や口縁上部が外方に折れて突出し胴部縄蓆文の短頸壺が、須玖Ⅱ式の広口壺に伴う(図9)。これは楽浪人の居住を示す。このほかB地区でも滑石混入の植木鉢形土器や瓦質短頸壺、C地区でも瓦質短頸壺や光州市新昌洞遺跡で出たような口縁上部が内側に折れて突出する球形壺は出ている。いずれも破片で日常生活に使用され、植木鉢形土器からみて楽浪人も居住したとみられる。こうした古式楽浪土器の出土は対馬市の峰町セノサエ遺跡でも見られ、楽浪郡から韓国南部の西海岸を経て南海岸部、さらには北部九州にかけて、弥生時代後半期のはじめには、それぞれの地域の海村交流網が一本の線で結ばれたことを示す。

また鳥取市青谷上寺地(アオヤカジチ)遺跡には、おそらく中期後半に下ると見られる断面三角形の赤焼(軟質)粘土帯甕(図8-14)があり、後述の鉄器の様相と合わせて、この交流網は日本の中国・四国地域まで伸びていた。そして、後述の中国銭貨からすれば、近畿にまで達していたと見られる。

IV. 中国銭貨

中国銭貨は日本の海村では、これまで御床松原遺跡(新町遺跡を含む)で6点(半両銭2点、貨泉4点)、原の辻遺跡では15点(五銖銭1点、大泉五十1点、貨泉11点、不明銭2点)が出て、元岡遺跡は9点(五銖銭1点、貨泉8点)、今宿五郎江遺跡は5点(森本幹彦 2008)である(図11・12)。青谷上寺地遺跡では、楽浪土器こそ出ていないが、大量の漁撈具とともに貨泉も4点出た。ほかに大阪府亀井(カメイ)遺跡は貨泉4点、岡山県高塚(タカツカ)遺跡は貨泉25点で、いずれも当時の海に隣接して立地する。これら4点以上の中国銭貨が出た海村は、原の辻遺跡を除くいずれも国の拠点集落ではない。大きさも、20万m²を超える国の拠点集落に比べると、多くは小さな集落である。またこれら海村の中国銭貨は、墳墓ではなく日常生活域から出る点に特色がある。

いっぽう国の巨大な拠点集落遺跡では、とくに北部九州の場合、三雲南小路や須玖岡本(スグオカモト)D地点のような30面前後の中国鏡を集中保有する王墓を頂点にして、周囲に完形中国鏡を副葬する例が多い。これに対して、海村では原の辻遺跡を除くいずれも中国鏡は鏡片ばかりで点数も少なく、完形鏡は全くなくて、集落の規模と保有する中国鏡の質・量は比例する。ところが中国銭貨

は、20万m²をこえるこうした国邑級の遺跡では、三雲・井原遺跡0点、須玖遺跡1点(貨泉)、福岡県平塚川添(ヒラツカカワゾエ)遺跡1点(貨泉)、佐賀県吉野ヶ里(ヨシノガリ)遺跡1点(貨泉)、愛媛県文京(ブンキョウ)遺跡0点、奈良県唐古・鍵(カラコ・カギ)遺跡0点、大阪府池上曾根(イケガミノネ) 0点、滋賀県伊勢遺跡0点、「都市」と喧伝され交易の拠点とされる比恵・那珂遺跡も0点で、集落規模とはむしろ反比例的である。青谷上寺地遺跡には、鹿角製アワビおこしが多数みられ、西北九州型結合釣針も存在するから、北部九州の海村を介して、そして時には直接に、中国・韓国とつながっていたことは確実である。

韓国でも南海岸地帯を中心に中国銭貨の出土例が増加し、集成的研究もなされた(金京七 2007、国立慶州博物館 2007)。それらを通観すると、沿岸部での日常生活域からの出土品と、内陸部にかけての墳墓出土品に大別される。後者は慶尚北道慶山市林堂洞遺跡A-1-74号墓、A-1-121号墓、E-132号墓から各1点、慶尚北道永川市竜田里遺跡木棺墓3点、慶尚南道昌原市茶戸里1号墓3点が属し、いずれも前漢代の五銖銭で、副葬時期も紀元前1世紀である。いっぽう前者の勒島遺跡ではC地区で前漢代の五銖銭1点と半両銭4点(合計5点)が出ており、報告書は未刊だが、弥生中期後半併行期の可能性がもっとも高い。貨泉は済州市山地港で貨布や大泉五十、後漢の五銖銭とともに出ていて、共伴の中国鏡や小型仿製鏡からみても、その時期は紀元後1世紀とみられる。金海貝塚、郡谷里貝塚、城山貝塚からの出土も海村との結びつきを証明する。そして林堂洞遺跡など拠点集落の日常生活域では出土しないから、海村に集中する傾向は韓国でも同様である。

また、勒島など最近の例からみて、日本列島の五銖銭や半両銭の上限も紀元前1世紀となる。とくに御床松原遺跡の半両銭の上限は中期後半までさか上る可能性がある。岡山県高塚遺跡の貨泉は、共伴した土器からみても紀元後1世紀代に位置づけてよく、日本列島の貨泉の使用時期の上限は後期前半である。

西日本と朝鮮半島南部の海村に中国銭貨が集中し、しかも海村では墳墓の副葬品ではなく、日常生活域から出るとは、それらが威信財ではなく、海村の日常的な活動の中で用いられたことを示す。つまり交易の場で中国銭貨を対価として使用した可能性が高くなるのである。この推定を裏付けるのが、日韓の沿岸部で大量に発見された中国銭貨で、具体的には全羅南道麗水郡巨文島の五銖銭980点と山口県宇部市沖ノ山(オキノヤマ)の116点(半両銭20点、五銖銭90点)以上の例である。

巨文島例は難破船とみられ、五銖銭は前漢と後漢の二者があるとされたが、李栄勲・李陽洙氏は、前漢代とする(国立慶州博物館 2007)。今後の詳細な再検討に期待したいが、貨泉が1点もないことは注意される。

沖ノ山例は周知のように江戸時代に発見され、納められていた容器は中期後半代の擬無文土器甕である(小田富士雄 1982)。古賀信幸氏・豆谷和之氏は「この甕の口縁した11~12cmから下の内面には、ほぼ全周にわたって円形の緑青が付着した痕跡が観察できる」ことからレプリカを作成し、古銭の代用として10円硬貨を入れてみたところ、「10円硬貨135枚では最上部が口縁下15~16となり、埋納甕に近い状況にはならなかった」ため、同様な状況を得るためには、500枚以上の10円硬貨を必要とすることが判明したという(古賀信幸・豆谷和之 1995)。この土器の時期は、同様な口縁形態の無文土器系赤焼甕や鉢が靫島遺跡にあり、弥生時代後期初頭併行期の赤焼甕とは明らかに異なるため、弥生中期後半の無文土器系の土器でよい。

韓国内陸部の五銖銭副葬地帯と南海岸の海村地帯の接点に位置する茶戸里1号墓の筆と文房具系遺物(素環頭刀子、銅環、五銖銭)について、李健茂氏はかつて、これらの筆が筆記用であることを論証するとともに、銅環を両皿天秤にものをのせて重さをはかる砝碼とした。そして両皿天秤こそ出てないものの、鉄の地金(2点1組でさし合わせにして紐でくっつけた梯形鑄造鉄斧)をもって中国の漢または楽浪と交易し、その内訳を筆で記録し、まちがえた文章の内容訂正や削除を書刀(素環頭刀子)でおこない、代価の銭(五銖銭)を天秤と砝碼(銅環)ではかるという被葬者像を描き出した(李健茂1992)。その後、原の辻遺跡では弥生時代後期の棹秤の錘である銅権が出て、島根県田和山(タワヤマ)遺跡には中期後半の楽浪系石硯・研石があり(松江市教育委員会ほか2005)、靫島遺跡B地区カー245号住居では鑄鉄製の権や楽浪製石硯・梯形鑄造鉄斧に中期後半の弥生土器の共伴し(李昌熙2007)、靫島遺跡A地区の報告書の考察では石権が提起された(慶南考古学研究所2006d)。これらを勘案すると、弥生時代後半期の韓日の海村では、交易の際に棹秤で代価の銭をはかり、それを文字で記録したことが考えられる。そうした交易の主な品目は、棒状や板状あるいは板状鉄斧や梯形鑄造鉄斧などの形をした鉄素材(鋼状態のもの)および原料鉄(銑鉄状態のもの)とみられる。

また、先述のように三雲遺跡では番上地区に楽浪人の居住が考えられ、八竜(ハチリュウ)地区の大溝で出た弥生後期後半の大甕の頸には「竟」(鏡)字がへうで刻まれているから、ここでも渡来楽浪人を中心とした文字の使用が考えられる。しかし、ここでは中国銭貨は無いから、彼らは北部九州の国々の連合体であるツクシ政権と朝鮮・中国との公的な外交活動の方面に深く関わり、海村世界で展開した経済的な交易活動とは、一線を画したとみられる。

つまり、弥生後半期には、対馬と韓国南海岸地帯との日常的な交流活動が基礎にあり、その上に日韓両地域の海村世界での交易活動が展開し、さらに上層部にツクシ政権の首長層と中国王朝本土や楽浪・帯方郡や諸韓国との外交交渉が位置するという三重構造が形成されたのである。もちろん

三者は全く別個の存在ではなく、ツクシ政権の中国王朝などへの公的遣使に、北部九州沿岸の海村や対馬の人々も深くかわり、逆に三韓と倭の交易は韓日の海村世界が主導しツクシ政権の首長層を制御したと見られる。

V. 冶鉄遺構と鉄素材、原料鉄

三韓と倭の交易の主な品目には、棒状品や板状品のほかに大形板状・棒状の鉄斧や鑄造梯形鉄斧もあって、日本列島での鉄素材・原料鉄と考えられる。

筆者がいま注目しているのは鑄造梯形鉄斧(武末2006)で、韓国では2点1組で使用され刃部が丸くなった農具の例もあるが、靑島A地区貝塚カ層の打ち壊された例(図18-4)や、茶戸里1号墓の2点1組でくられ中型の土がつまった例(図18-1)、あるいは靑島B地区カー245号住居跡の使用痕がなく逆向きに2点を一組に差し合わせた例(図18-5)などからすると、原料鉄でもあった。

特に弥生時代の日本列島例は、兵庫県大平(オオヒラ)遺跡出土例を除くといずれも破片である(図18-6~16)。さらに西日本の出土例を集成した際には、九州では壱岐・対馬に限られ、しかも側縁突線がないのに対して、中国・四国地域では側縁突線をもつ例があって、異なる生産地から入手した可能性を示唆した(武末純一2006)。その後、九州では雲透(クモスキ)遺跡SX202(中期初頭~前半)と、福岡県春日市須玖遺跡盤石(バンジャク)地区2次1号住居(中期後半および後期終末の土器が出土)でも出ていたことを知った(唐津市教育委員会1998、春日市教育委員会2008)。盤石例は側面が中膨らみの横断面形からみれば、中期後半にさかのぼってかわらない古式の形態で、靑島A地区と同時期の可能性がある。また、中国・四国地域では青谷上寺地遺跡3区SD20(後期初頭~後葉)の鉄鋤先に付着した例(鳥取県教育文化財団 2002a)と、鳥取県米子市古市宮ノ谷山(フルイチミヤノタニヤマ)遺跡堅穴住居2(後期後葉)でも出土していた(鳥取県教育文化財団 2002b)。古市宮ノ谷山例は、提示された図では側縁突線がない。青谷上寺地例は側縁突線もち幅広で、古式のI型の破片とみられる。両端を折り返した鉄刃に付着していて、青谷上寺地での時期は後期となる。製作時期自体は古い(紀元前3~2世紀)が、おそらく破片で持ち込まれたものであろう。これらの新資料を追加しても、日本列島例の多くが破片であり、しかも九州の例では側縁突線がなく、中国・四国地域の多くに側縁突線がある点は変わらない。青谷上寺地例からみても、これらは鋼精錬をして鉄素材にするための原料鉄であったとみられる。

福岡県須玖遺跡では赤井手(アカイデ)地区、仁王手(ニオウテ)A地区で炉跡や未成品、端切れ、送風管など鉄器製作関係遺物が出て、複数の工房が併存したとみられる。なかでも赤井手地区は出土した遺物から、鉄器製作の過程が復元されるなど、早くから注目され、いまでもその重要性は変わらない。鉄剣の半製品が出た中期後半の33号住居跡では、深さ20cmで甚しく焼けた隅丸方形の炉が設けられ、その周囲にも焼痕がみられた。この住居跡からは精錬途中の塊状鉄鉄資料も出ていて、輸入した鋼素材を加工する鉄器製作だけでなく、原料鉄(銑鉄)を鋼に変える鋼精錬作業も行なわれたとみられる。二段掘り下段部に防湿設備をした炉は仁王手A遺跡でもみられる。また、5号土坑には鉄斧の半製品がある。このほか赤井手遺跡では、後期後半～末の6号土坑から、韓半島では10本1組で副葬されることの多い大型棒状鉄斧が7本出て、これも鉄素材であったとみられ、ここが継続的な鉄器生産の場であったことを示す。

鋼精錬で注目されるのは、長崎県対馬市三根遺跡山辺地区に集中する鑄造梯形鉄斧片で、ここでは碗形滓なども伴う。ただし、山辺地区では古墳時代の遺物も同一層にあり、弥生時代の冶鉄関連遺物を厳密に抽出できない。これに対して靉島遺跡A地区では、炉のほかに送風管(棒に植物質の繊維を縦方向に並べて捲き付け、更に植物の繊維で縛ってから、粘土を巻き付けて作る)や炉壁、鉄滓、鍛造剥片もある。送風管の大きさから見て鍛冶のほかに精錬もしたとされ、鑄型や中子は出ていないが、分析では溶解炉でできたとされる鉄滓もある。弥生中期後半から後期のこうした日朝の海村では、単に南北のものをそれぞれ仲介するだけでなく、一部は加工し付加価値を高めて交易したことを示す好例といえる。

また、大型板状鉄斧は茶戸里遺跡で多く見られ、1号墓のように刃がついていない例もある。これは、もちろん斧としても使うが、切斷してそのまま小型の鉄器を製作する鉄素材でもあった。熊本県玉名市前田(マエダ)遺跡の切斷した頭部が残った大型板状鉄斧(後期初頭)はそれを裏付ける例である(図17-7)。

こうした大型板状鉄斧や鑄造梯形鉄斧の交易に海村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ことは、御床松原遺跡や原の辻遺跡・青谷上寺地遺跡でそれらが出ていることからわかる。

VI. おわりに

本稿では弥生時代の海村を設定し、弥生後半期になると、西日本と韓国南海岸の海村には楽浪土器や中国銭貨が目立つようになり、近畿から楽浪・帯方郡までの交易網に組み込まれたと見られる。とくに中国銭貨は、中国鏡とは対照的に、海村の日常生活域から多数出土して、国の中心となる

巨大農村やそこから展開した都市的集落ではほとんど出ない。したがって中国錢貨は、漁撈とともに海村の生業活動の主体である交易活動の場で、対価として用いられるとともに、そこでは文字も使用されたことを推測した。こうした中国錢貨の使用が次の古墳時代には途絶えることは、これが中国漢帝国を背景にしてはじめてできたことを示している。

また、交易の対象物は原料鉄や鉄素材であったと見られ、大型板状鉄斧や鑄造梯形鉄斧の形での流通もその比重が高かったと見られる。文字の使用、中国錢貨の使用、大型板状鉄斧や鑄造梯形鉄斧の流通は、いずれも茶戸里遺跡の出土遺物に大きくかわる事象である。茶戸里遺跡は原三国時代前期前半(弥生時代中期後半～後期前半)の楽浪から日本の近畿までの交易網の中で、大きな結節点の役割を果たしたといえる。そして、茶戸里1号墓の被葬者は、「交易の王」であると同時に「鉄の王」でもあったのである。